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보관

일시 1998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을 대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시민의 입

장에서 행정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일은 공보관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공보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비상기획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주시고, 공보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선서)

○위원장 김종구;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현안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와 또 공보관

의 인사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업무보고에 이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인년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운용으로 시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경제난 극복과 관련해서 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실직자를 위한 구인·구직란을 개설 홍보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정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보관실 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에 각종 경비 등은 절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별 탈 없이 공보관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있게 되는 '98행정사무감사는 민선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저희 시나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이현구, 보도담당관 서철모, 홍보기획팀장 김강렬, 여론팀장 이선철, 홍보협력팀장 홍세표, 홍보운영팀장 김석호, 출판관리팀장 김용백, 영상물제작팀장 유영호, 보도기획팀장 양석구, 방송팀장 윤종장)

지금 유길준 신문팀장은 오늘 시장님께서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오늘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야 하는데 부족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내려 주시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꾸짖어 주셔서 저희가 행정발전에 큰 거보를 디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시간은 가능하면 지켜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건설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하 전직원이 서울시정의 발전에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65페이지 두번째입니다.

부정확하고 왜곡 보도 사례 및 대응조치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건대 왜곡, 편파, 오보, 과장, 시각차이 보도내용입니다. 96년도에는 96건, 97년도에는 93건, 98년도에는 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는 약간씩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이와 같은 왜곡보도 이유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오보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자들한테 기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취재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단독취재,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취재해서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잘 설

명을 드러서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보가 나오면 저희들이 주관 과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갖고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소관 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신문기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신문사에 가서 타이틀이라든지 내용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상 위원; 언론사 매체를 볼 것 같으면 지역신문사도 아니고 주로 일간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설명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언론매체에서 어떠한 기자들의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오보되고 한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썼는데 그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는 회사의 편집부에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하고 다르게 타이틀을 붙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신문편집인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런 오보가 생기는 것은 우리 기자들과 거리를 좁히지 못한 그러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해서 바른 기사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상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별로 건수가 줄긴 줄었는데 얼마 차이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추진할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제가 보고 올렸듯이 특별한 방지책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자분들에 대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이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전에 업무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건상 위원; 두번째는 감사자료 359페이지 5항인데요, 서울시 출입언론사 현황 및 신규기자설명회 개최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언론사 25개에서 출입기자가 96명인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연 두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저희들이 연 4회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자료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 4회 하는데 금년 현재 두 번 했고 12월에 출입기자들이 바뀌면 그 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건상 위원; 금년에 두 번 했어요? 98년 2월 24일 간담회 기자 33명 참석했는데 자료에는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기자간담회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1/4분기에는 2월 24일에 20명에 대해서 했고, 2/4분기에는 신규출입기자 25명에 대해서 7월 20일에 했습니다.

○이건상 위원; 간담회에서 주로 VTR상영 또는 견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체육회 또는 간담회를 수시로 갖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언론사가 왜곡 또는 편파적으로 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태경; 질의순서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정은 간사님이 해 주시고, 세번째로 김영준 위원께서 해 주시고, 네번째로 한춘자 위원께서 해 주시고, 다섯번째로 신경식 위원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비로 97년도에 18건 8,16만 1,000원과 98년도에 14건으로 3,505만원으로 2년 동안 32건에 1억 1,66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조사결과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표본으로 부지는 어느 곳이고, 찬성은 몇 명이며 반대는 몇 명인지, 정책결정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남상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8페이지에 98년도 여론조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을 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체에 대한 것, 또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것,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것, 또 민선2기 시정방향에 대한 것, 장묘문화정책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은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의 날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월드컵 명칭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사부지에 대해서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도 용산

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용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따로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청구된 162건 중에 공개가 115건이고 비공개가 36건이고 기타가 1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이 중에서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 재판이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36건이 전부 정책의 비밀을 요하는 사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개시에 혹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비공개하는 것인지, 또 시의원에게까지도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공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행정정보공개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보여는 드리지만 정식으로 문서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정보에 대해서 감사자료 221쪽을 보시면 비공개되는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전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정은 위원;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세번째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계획은 98년도에 58종으로 예산은 14억 9,156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28종이 미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개월에 미제작된 28종을 집중 제작하든가,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과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며, 98년도에 제작하여 기 배포된 시정홍보물 중 유료보급하여 판매한 것은 몇 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에 유료판매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지 발행에 대해서는 월간서울과 주간시청뉴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실행예산액이 14억 3,794만 8,000원인데 집행된 것이 11억 3,531만 3,000원으로서 78.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은 월간서울 1억 4,471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청뉴스 8,379만 1,000원, 시보 2,770만 9,000원, 점자판 시청뉴스 1,620만원, 기타 3,9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홍보물 관리에 있어서 14억 9,156만 8,000원 중에서 61.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9억 2,181만 7,000원인데 주간영상물 제작에 3억 1,000만원, 이것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이고 시정홍보책자에 1억 3,469만 4,000원 이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홍보책자 등 32종 4억 7,712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현

재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모두 21건에 5억 6,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11월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분야는 각 주관 과에서 현재 책을 만드는 곳도 있고 발주해서 인쇄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미집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실질적으로 12월이 되면 책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계획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불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38%나 되는 이런 불용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직접판매가 5,687부에 금액이 6,032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가 6,517부로서 2,123만 8,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28종에 2만 2,888부가 팔려서 5,829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판매한 것이 4,94만 3,000원, 그리고 위탁판매한 것이 886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간행물에 대한 판매실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료로 할 것이냐 또는 판매를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책의 내용과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현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번째로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집행잔액 등 총 불용액이 11억 2,050만 6,000원이나 되는데 그 원인이 예산편성시 사업예측을 잘못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우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그랬는지, 또는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겠는지,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4억 7,680만 1,600원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감사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을 보면 세출예산이 74억 7,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63억 5,61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1억 2,050만 6,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약 14.9%나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화보가 제작하려다가 계획을 취소해서 1억원, 이것은 선거도 있고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절약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축안내책자와 제작계획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 건축안내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건축과에서 이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수첩 제작계획 취소로 2,500만원, 그래서 금년에 소방수첩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청뉴스가 4,619만원, 서울모니터 사례비가 1,400만원, 홍보관 개관 지연에 따른 피복비 미집행이 810만원, 보도활동지원 급량비 미집행이 900만원 됩니다.

이 홍보관 지연은 작년 2월에 개통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근무자들에 대한 복장을 만들어 주는 것 800만원이 절약됐

고, 보도활동지원 급량비는 작년에 성수대교 같은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거기에서 취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급량비를 작년에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사고가 하나 안 나서 이것은 그대로 절약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론 위탁조사를 하지 않고 직접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10%, 업무추진비 20%, 그리고 특수활동비 20%, 보상금 10%, 이렇게 절약한 것이 5억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예산만 욕심이 나서 예산을 세우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다섯번째로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2월 제2기 모니터요원 500명이 선발되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1년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이며, 모니터요원에게 부과되는 지정과제는 연간 몇 건인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봤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이 전혀 없는 요원의 제재방법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모니터요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감사합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은 아까도 보고 올렸듯이 500명이 되는데 서울시 각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인구에 따라서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해서 조화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정과제는 매월 한 과제씩 저희가 주고 있고, 자유의견은 수시로 우리가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월 또는 연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당 지정과제에 대해서 채택됐을 때만 건당 2만원, 그리고 자유의견으로 제출된 것이 채택되면 건당 1만 2,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500여 명이 열두 달 동안에 전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몇 가지씩이라도 채택이 되고, 혹시 저희가 선정을 잘못 해서 그런 한두 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년씩 위촉을 하기 때문에 새로 뽑을 때 별로 실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다음 해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정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5쪽을 보면 98년 8월 28일자와 10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평가단 1,100명을 전문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 평가단이 고건 시장을 직접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단의 성격은 무엇이며, 운영 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시민여론조사, 시정모니터제도, 인터넷, PC통신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시정참여와 시민이 투고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민여론조사와 시정모니터제도 운영에 연간 1억 8,000여만 원을 쓰고 있는데 굳이 고건 시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평가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이정은 간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기 전에 서울시의 조

직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옛날과 다르게 고건 시장님께서 취임한 후 8월에 인사를 실·국·과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실·국장 책임제를 통해서 예산과 직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팀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팀제에 대한 업무실적, 성적 이것은 시장님 혼자서 또는 감사관실이나 어떤 일반공무원 평가단만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평가에 의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어렵겠지만 2000년부터는 실적제에 의한 봉급수준이 결정됩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시장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이 실제평가를 함으로 해서 공정한 공무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건 시장님 개인에 대한 직접평가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정개혁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뉴스를 보면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광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보다이어리, 시청게시판, 그리고 일자리 알뜰장터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고도 제출해 주고, 또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간 시청뉴스를 보고서 아주 대단히 유익하다 하는, 89%가 유익하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월간서울과 시청뉴스를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서울시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란도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공보관께서는 홍보는 나중에 하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공보관께서는 네,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김영준 위원; 조금 전에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4억 2,823만 1,000원 이런 것은 필요없고 4억이면 4억, 거시적으로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총론 하나하고 각론 두 개를 질문하겠는데 지금 이 책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오늘 예야 알았는데 서울특별시직 제규칙 제2장 보좌관 기관에 대해서 공보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보관 밑에 홍보담당관, 보도담당관 및 홍보를 담당하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과.....,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읽는 것은 공무원은 의전과 조직과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인데 대한민국정부조직법에서 행정직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추후에 개정된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당초의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구조직을 보니까 홍보담당관이 1등, 보도담당관 일반직 서기관이 2등, 이런 것은 없어요.

단, 이렇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산상 98년 10월 31일 현재 홍보관리를 위해서는 66억원이 책정돼 있고 보도관리에 대해서는 6억입니다. 이것은 일이 많아서 그 위에 올려놨는가 모르겠는데 공보관 잘 알잖아요. 그 뒤에 사무관도 잘 알잖아요. 9급 서기도 잘 알잖아요. 행정법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직 서기관이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소방관련이 다 시정시켰나 본데, 두번째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직, 그 다음에 건축직, 지적직, 서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 시정하세요.

각론에서 얘기하겠어요.

업무보고 27페이지, 서울시 시의원 4년을 월드컵에 거의 초점을 맞춘 시의원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기자들이 새로 오면 서울시를 안내하기 위해서 현장견학을 시킨다는데 난지도를 좀 시켜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네.

○김영준 위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는 사업이에요.

엣그제 내가 혼자 난지도 올라가 봤어요. 정수장도 가고 난지도 꼭 넣어 주세요.

아주 미세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27페이지,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명칭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주경기단장이 했고, 그 위에 시정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선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홍보담당관,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소요예산이, 이것은 워낙 몇 푼 안 되니까 끝자리까지 얘기해야겠군요. 67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화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서 발효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영준 위원; 본위원은 우리 훌륭한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내는데, 첫번째 조직구조에 대해서 이 업무는 공보관이 주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직, 기술직 이렇게 나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인가 모르겠는데 6급 별정직 두 사람을 모집하는데, 신문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박사가 세 사람이나 들어왔어요, 또 서울대학교 석사가 몇 사람 들어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필곤 부시장 이 자리에 기립시켜서 이야기했어. 삼성사람이 우수한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공무원 우수하다. 금년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208 대 1이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뜻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도 되는 것이고 국가도 되는 것이고 행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 한춘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27페이지 공보관 소관위원회현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19명 중에 시민의 대표이고 여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주요시정현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조사하여 주요시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때 시의원이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다소 위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간행물심의위원회,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등도 이들 위원회가 정말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이나 행정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한춘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현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소위원회고 또 하나는 조사방법소위원회입니다. 주제소위원회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공보관과 각 국장,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회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여론조사 할까 이런 것을 정하는 그런 데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좋은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소위원회는 시 공무원이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전문대학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방법소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높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위원회까지 오시라고 하기가 대단히 미안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사실 이 공보관실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그다지 넉넉하게 많은 예산도 아닌 데에서 많이 절감하시느라고 불용액을 많이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내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요?

○공보관 남상우; 아까도 이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을 내려고 하는 것은 TV CF공중파,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하는 것 2억 2,000만원 그것만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주관 과에서 집행이 되어서 12월에는 책이 다 나오고 해서 아까 38%가 미집행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불용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한춘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금년 예산에서 적절하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남상우;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춘자 위원; 본예산이야 제로베이스로 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불용 자체는 적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많은 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시정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정명칭은 우리 새서울, 캐치프레이즈는 열린 서울 열린 미래로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었죠?

○공보관 남상우; 네.

○신경식 위원; 심사위원 7명이 이 엄청난 서울시를 상징하는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위원들을 보면 아나운서 2명, 시인 2명,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할 수 있어요?

서울시를 상징하는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자문 한 번 구해 본 일이 없이 아나운서 2명, 시인 2명, 교수 2명명 이렇게 앉아서 정해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아랑곳없이 아나운서 2명, 시인 2명, 교수 2명,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박하게 해요?

시민전체의 투표는 못하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자문은 구했어야 할 것 아니요. 최소한 말 한 마디 했어야 될 것 아니요.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는 2명이나 들어가요?

○공보관 남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우리에게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요.

○공보관 남상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먼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신경식 위원; 어디에서 거쳤어요?

○공보관 남상우;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는 안 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출입기자, 공무원 해서 투표를 다 했었습니다.

○신경식 위원; 그러면 나는 시의원 아니요? 이 신경식은 시의원 아니요?

○공보관 남상우; 시의원님들 전체는 못하고,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어느 시의원한테 했냐고요? 여기 앉아 계신 시의원들께서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주관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예요.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공보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들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공보관 남상우; 전체 다 안 하고.....

○신경식 위원; 안 했지만 여기 행정자치위원 16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공보관 남상우; 20명 정도 의원님들한테만.....

○신경식 위원; 이런 중대한 일을 20명한테만,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김씨 이씨한테만 물었오, 누구한테 물었오?

그리고 캐릭터 이름을 공모해서 왕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범이가 무슨 의미예요?

○공보관 남상우; 왕범이는 호랑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왕범이라고.....

○신경식 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캐릭터를 왕범이로 한 경위를 말해 봐요.

○위원장대리 송태경; 누가 답변할 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이것을 직접 한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그래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신경식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왕범이니 뭐니. 아나운서 둘, 시인 둘 모아서, 그것이 뭐예요?

○홍보과장 이현구; 시 홍보과장 이현구입니다. 제가 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선정경위는 캐릭터 디자인이 작년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부터.....

○신경식 위원;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왕범이로 확정을 시켰어요?

○홍보과장 이현구; 디자인 확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확정에 따라서 98년 1월 1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 4,242건이

접수되었고, 심사위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경식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예요?

○홍보과장 이현구; 심사위원은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사했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왕범이로 선정했습니다.

왕범이의 의미는 호랑이는 인왕산 호랑이를 뜻합니다. 왕은 우두머지, 으뜸, 아주 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이고, 그 다음에 범은 호랑이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두 말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왕범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경식 위원; 서울시의 상징물을 왕범이로 하고 서울시정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한테는 이만큼도 물어 보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정해? 서울시가 당신 거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서울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현구; 그 때 여론조사 다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 여론조사도 있었고.....

○신경식 위원; 시의원 누구한테 조사를 했느냐 그 말이야.

○홍보과장 이현구;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신경식 위원; 엇그제 98년 8월, 9월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6명 하나도 자문받은 사람이 없어.

○홍보과장 이현구;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나는 시의원 아니요? 여기 여정구 위원 시의원 아니요?

○홍보과장 이현구; 시의원님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 저희들이 시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다 여론조사는 못하고.....
- 신경식 위원;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니요. 서울시 상징을 당신 마음대로 정해버려?
- 홍보과장 이현구; 상징물이 아니고 캐릭터입니다.
- 신경식 위원; 캐릭터도 상징물도 그렇잖아. 서울시 상징물 활용 캐릭터사업.
- 홍보과장 이현구;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캐릭터사업은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결정되기 이전에 문교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 신경식 위원; 시정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사업은 언제 한 거예요?
- 홍보과장 이현구; 그것은 이번에 했습니다.
- 신경식 위원; 이번에 하면서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이 말이야.
- 홍보과장 이현구;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경식 위원; 서울시 시정명칭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버려, 공무원들 마음대로. 아나운서 두 사람, 시인 두 사람 모셔다가. 시의원들이 아나운서만 못해서 안한 거요?
- 위원장대리 송태경; 공보관계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하죠. 과장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공보관계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 공보관 남상우;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 신경식 위원; 당신들이 시의회 위원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할래요? 공보관 소관 내년 예산 2/3를 깎아버릴테야. 뭐야 이거, 시예산 가지고. 잘된 거에

요,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태경; 입장을 정리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정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면서 그래도 우리 나라 최고이신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시인들도 그냥 보통 시인들이 아니고.....

○신경식 위원; 뭐, 특별한 시인이오?

○공보관 남상우; 그리고.....

○신경식 위원; 아나운서도 보통 아나운서가 아니구만.

○공보관 남상우; 일단이 정해졌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출입기자들하고, 출입기자들도.....

○신경식 위원; 의원들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말이에요. 자꾸 의원들을 물고 늘어져.

○공보관 남상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다 종합을 했는데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다 여쭙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물론 이고 많은 시의원님들의 높이신 뜻을 받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요 공보관 내가 징계동의안 낼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런 경박한 처신이 어디 있어요?

왜곡, 편파, 오보 77건 중에서 이것이 아니오 이렇게 해명만 하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본 사실이 있어요?

○공보관 남상우;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신문기자가 무서워서 그러지, 언론사가 무서워서.

○공보관 남상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경식 위원; 그러면 왜 오보가 많고 왜곡보도가 많고 그랬는데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정만 했죠, 도시락 싸 갖고 신문사 쫓아다니면서.

○공보관 남상우; 대개는 설명을 해서 오보된 것을 마지막 서울시 배달판에서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기자들의 비위를 건드려 가지고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공보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신경식 위원; 아니, 기자들한테 눈 밖에 나면 공보관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

○공보관 남상우; 눈 밖에.....

○신경식 위원; 공보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공보관 직제가 있는 것 아니요,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지. 기자들한테 잘 보여서 싸우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공보관 자리 만든 것 아니에요.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경식 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공보관 남상우; 그러나 공보관이 한 번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 가지고 또 그 공보관이 기자랑 다투고 싸우고 그것은 그 다음에는.....

○신경식 위원; 잘못된 것은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계속 오보를 해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으로써 끝나고 지방판에만 막고 가판은 나가버렸고, 가판 한 번 나가버린 것은 속수무책이야, 그대로 뒤집어써. 그리고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요?

고의적인 오보,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재는 요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건이 없어.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론조사 내가 돈 몇 푼 갖고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122페이지를 보면 전화로 1,000명한테 물어본 여론조사 비용이 각각 틀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봐요, 많이 틀려요. 면접하는 데 각 500명씩 했는데도 각각 돈이 틀려. 어째서 이렇게 틀려요?

○공보관 남상우;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정명칭이나 캐치프레이즈 이것은 다섯 개를 놓고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이 한 문항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 명칭도 명칭 3개를 놓고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원들한테 수당을 주는데도 다른 것은 시민의 날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시민 소비생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신경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면접 1,000명을 했는데 65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 대학 이용에 관한 조사는 1,200명을 했는데 돈이 또 적게 들었어요. 57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문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면

접원이 한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문항을 가지고 오랫동안 매달리는 게 있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서울시청뉴스는 시 직원들끼리나 돌려봐야 할 사항이에요. 시민들한테 서울시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월간서울은 그런 대로 돼요. 그래서 서울시청뉴스는 시 직원들이 보는 기관지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폭 줄여서 월간서울에 붙여서, 월간 서울은 시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것에 붙이고, 시청뉴스는 그야말로 시정이 아니고 시청 뉴스이니까 시청을 구성하는 시 공무원들끼리 봐야 하는 기관지예요. 서울시 직원 수필도 있고 산문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은 대내적인 것이니까 5억 7,300만원, 월간서울 6억 500만원, 거의 같아.

시청뉴스는 대폭 줄이고 그 예산 반 이방을 월간서울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월간서울의 페이지수가 거의 100페이지 되죠? 너무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그것 다 안 봅니다. 주간지 같이 짧게 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서울시청뉴스는 줄이고 월간서울은 늘리는 방법으로 같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남상우;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원 위원,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계서는 좀 구체적이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미봉책으로 얼른 넘어가는 식의 대답, 또 우리가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갑시다.

○공보관 남상우; 네.

○김길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66억 2,900만원에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게 한 67%에 해당되거든요. 앞으로 두 달이면 회기가 마감되는데 이것으로 볼 때 금년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리라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과연 이 공보관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공보관실에서는 기획하고 실제로 홍보나 또는 서울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말하자면 각 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홍보문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 책임하에 기획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신경식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지금 여기 보면 모두 같은 일을 계속중복하고 있고 소모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뉴스지 또 시정주간뉴스, 시정월간지, 이

것을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각 지자체 구청에서 발간하는 공보지가 있습니다. 또 일간신문지, 또 각 지역의 신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정을 위해서 협력하는 단체한테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차라리 일간신문지나 주간신문지에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금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전부 기획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96년부터 9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보가 약 265건입니다.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시장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직접 기자들과 대담하고 회견하고, 또 수시로 늘리고 있는 회견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금년만 거의 300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7건의 오보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공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김길원 위원님께서 기획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여러 가지 집행기능은 각 과나 일간신문사 같은데 이런 데 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길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의 핵심을.....

○공보관 남상우; 여기부터 죽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길원 위원; 네, 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월간서울이나 주간시청뉴스를 발행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주면 일간신문에서 이렇게 정

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하나의 공기로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따로 홍보비를 줘서 신문에 광고를 사지 않는 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구한다면 광고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김길원 위원; 광고가 아니죠. 어떻게 그것이 광고입니까? 보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신문에 보도차원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길원 위원;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일간지라는 것은 보도의 폭을 넓히고, 또 독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할 때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신문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김길원 위원; 그렇다면 보도자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독자가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보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각 지역에 신문이 있어요. 각 자치단체의 공보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왜 모두 다 서울시에서 끌어안고 일을 해 가려고 하는지? 실지로 한 번 이렇게 오보가 나면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신문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문기자분들의 속성이 시민들의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과장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구청으로 이양한다면 정말로 이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인력 가지고, 또 실력 가지고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김길원 위원; 우리가 그런 업무를 구에 일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자료를 기획을 해서 계속 각 구청에 송출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이 있으니까 공보지도 있고, 거기에 게재해서 계속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읽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지금 구에 있는 지역신문이 50개가 있고, 또 구도 반상회보나.....

○김길원 위원; 의견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공보관 남상우; 그래서 구정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시정홍보를 우리 시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시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에 넘길 수 없습니다.

○김길원 위원; 공보관의 식견이 아직도 폭이 좁습니다. 한 가정에 형과 아우가 있어요. 형은 형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자기집의 문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하겠어요? 힘을 합치면 그만큼 경비도 줄이고 홍보효과도 난다 이 말씀이에요.

○공보관 남상우; 그런 말씀이시라면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연구해서 정말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 다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어요.

우리 공보관님께서서는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어디가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보관 남상우; 아무래도 우리 행정감사가 높죠.
- 김길원 위원; 그런데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행정감사가 비중이 더 높습니까?
- 공보관 남상우; 그럼요. 죄송합니다만, 국정감사받을 때는
- 김수복 위원; 공보관님, 이것은 문서화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 공보관 남상우; 공보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아무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할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아주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길원 위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 김길원 위원;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각 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행정감사에 대한 보도준비를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 있어요?
- 공보관 남상우;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 것은 다 했고, 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것들은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구청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받았습
니다.
- 김길원 위원; 내 말은 시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해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고 단지 국정감사에 대해서만 보도준비를 해라, 그런 공문을 띄운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 공보관 남상우;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 행정감사에 대한 보도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띄운 적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남상우; 없습니다.

○김길원 위원; 없죠?

○공보관 남상우; 네.

○김길원 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의 얘기는 앞과 뒤가 맞지 않아.

○공보관 남상우;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공문을 생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길원 위원; 그래서 안 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김길원 위원; 그래서 안 했다 그 말씀이죠?

○공보관 남상우; 네.

○김길원 위원; 앞으로는 좀더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공보관실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도록 많아서 앞으로 대폭 축소해서 기획하고, 정말 서울시에서 해야 될 홍보는 서울시에서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모두에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는 주로 특정한 업무 몇 가지와 기획업무에 중점을 두고, 지금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소관 국·과별로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 안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바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문예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이 서울시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하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민문화상의 심사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공보관 남상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5만원 받았어요. 아마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권위 있는 문화상의 심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백일장이나 문화강사를 했을 때 한국문인협회에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지 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다면 우선 서울이야기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1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물어 보니까 한국문인협회 등 각종 문화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어요.

우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문단에 30년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필분과회장을 거쳐서 한국문인협회 수석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한국문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는 9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역분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의 번역분

과는 노벨문학상을 한국에서 수상하고자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번역을 하고 문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인 수필공모전의 심사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 의뢰한 사실이 없고, 한국문인협회에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심사비가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서울시문화상 심사도 5만원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5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각종 단체에 의뢰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문인협회 많은 분과회장과 이사장 등이 실망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결과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괜찮아. 한국문인협회에 정식으로 항의전화 오는 것이 1회 때도 심사의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왜 이런 것이 우리 한국문인협회에 질문이 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것도 내가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이것을 내가 시의원 되었으니까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원이 아닌 한국문인협회 수석부이사장의 자격으로 담당자를 찾았어요. 맨 처음 담당자가 김원균, 두번째 담당자가 김은순, 이 김은순 씨에게 문인협회에 심사위원 의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요구가 본위원회에게 이력과 경력사항을 팩스로 보내 달라는 거예요. 참, 30년 동안에 제 이력 팩스로 보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무리 이 미물에 존재하지만 30년 동안 소설과 수필을 쓴 저로서는 그래도 문단에

서는 예우를 받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내 줬어요. 보내준 바 이렇다는 말도 없어요. 목살시켜 버렸어요. 목살시킨 행위 자체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먼것번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서울시의회 의원 자체를 목살시킨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물었더니 행정부시장께서 결재를 했고, 웃사람들이 한 일이라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이것이 여기까지 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와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에는 한국문인협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심사위원도 있었고, 이것이 일단 문인협회로 오게 되면 백일장이라든가 공모 전에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심사위원 문단경력 15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문학상 몇 개 이상, 저서 몇 권 이상 이렇게 해서 위촉의뢰 온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과 문단에 10년도 안 된 그러한 사람이 끼여 있는가 하면 대가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문인협회에 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왔어요. 무슨 서울대 어디 운운하는데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죠.

또 번역분과의 외국인의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런 자그만치 심사료에 대한 문제성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권위 있다고 하는 심사위원들도 서울시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서초구청장은 우리가 경제불황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
를 위해서 적어도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설렁탕을 먹
어도 우리 지역사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자
이러는데, 세금은 우리 시민이 냈는데 심사위원은 엉뚱한 사
람이 심사로 50만원 이상을 다른 지역 대구사람이라든지 기
타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의혹이 있다
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서울시 공모전이 2회에 걸쳐서 약 1억 1,700얼마가
나왔어요. 이것이 과연 일과성 행사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예산을 집행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선 일과성밖에 되지 않아. 왜, 제가 문인협회
에 30년 일하고 있어요. 이것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것도 여
기 와서 빌붙어서 하나 얻었어요.

1회 때 했는데 전문가적인 저희들도 처음 보는데 이게 무
슨 홍보가 됐느냐 이 말이야. 1억 2,000만원이나 들인 행사
가 고작 30년 문학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가는 수석부이사장
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봤다면 이것은 예산
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달라고 달라고 해서 본
거예요.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도 사전에 제가 옆드려서 의혹 사지 말라, 한국문인협회로 해
달라. 제가, 수석부이사장이 간곡하게, 요즘 총장들이 일선
에 나서서 학생들 직업을 구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과 같은
데 없는 짓을 저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다 목살시키고 보기 좋게 문학단체에 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하나만 했어도, 그런데 10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매년 심사위원으로 지난 1회 때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들어가고, 이것 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야기 수필에 대해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먼저 소설가협회, 문인협회, 수필가협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철호 위원; 지금 그 공문 있어요? 사본 있어요?

○공보관 남상우; 네,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수필가협회 회장인데 받지 못했어. 결재도 안 냈어.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네, 세 군데 보내서 추천의뢰를 해 왔는데 한 군데에서 세 분씩 해 가지고 열 분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민족작가협의회에 보내서 거기서도 추천을 받으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고, 외국인 심사위원이 네 분 됐습니다. 그래서 열 분인데 민족작가협회의 시인 조은 씨하고 시인 박철 씨가 여기 추천이 돼서 최종으로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외국인 이것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나 문인협회에 의뢰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서 사본을 보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부터 질문해야 되겠어요.

○공보관 남상우; 이것이 197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지량이 많은 것은 30페이지도 되고 20페이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7건을 전부 심사하는데 50만원씩 드리고.....

○이철호 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공보관 남상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네.

○공보관 남상우; 마지막 날 여섯 분이 오셔서 같이 최종적으로 한 60여 작품을 놓고서 마지막 심사할 때 5만원씩, 그 날 오셔서 4시간 동안 심사하는데 5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5만원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심사료 500만원으로 정했으면 5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공보관 남상우; 내국인 여섯 사람, 외국인 네 사람 해서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여튼 전 문단 30년 동안 각종 심사를 다 했지만 심사료 50만원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자, 그것만 얘기합시다. 심사위원과정 사본 이따가 저 주셔야 됩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각종 위원회가 6개나 되는데 금년도 회의 개최 일수와 시간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빨리 서류로 만들어 놓으세요.

○위원장대리 송태경; 오후에 할 때 이철호 위원께서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서하고 이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철호 위원;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시다만, 시정의 흐름을 바로 알고 시민들의 여론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에 원고를 부탁해서 시민들이 읽을거리가 충분하도록 편집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무슨 무슨 기 전문가라고 썼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또 아무개 민간요법 연구가 했는데 이것도 검증된 사실이 없어요. 이런 비전문가들로, 이런 잡문들로 지면을 채워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원고를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내봤는데 그냥 묵살시켜 버렸어요.

그 때는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의도 못 했지만 일반 전문 문인들이 다 같이 그 책을 놓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학작품을 많이 게재하는데 보면 전부 시청 공무원들이야. 무슨 지하철본부의 누구 시인, 어디 구청 홍보계장 시인 아무개, 이런 사람들로 해서 원고료 지급이 되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홍보지라고 하면서 전부 자기네들 밥싸움이나 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증거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공보관 남상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위원; 시정이 되겠어요?

○공보관 남상우;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내가 질문 한 20개 가져 왔는데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또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

치고 아까 그 사본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문인협회도 난리가 났어요.

○위원장대리 송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공보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이 서울의 미래,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보관실의 미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직자라는 것은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편리한 자리에 가서는 누가 위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누가 아래라고 하고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느꼈을 때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 꼬집어서 말한다면 오보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경우에 공보관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그런 증거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새로이 자기 반성하면서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보에 대해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지난번에 6급 주사가 200억대 부당하게 이권개입해서 재산 축적이라는 보도가 온 천지에 다 나갔어요. 본위원이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해 보고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선조 때부터 땅이 많았더라구요.

왜 그러십니까? 6급이 그랬을 때 위의 직급은 어떠했겠는가 이것부터가 우리 공무원들 불신을 받게 하고, 또 그런 것

을 바로 교정역할을 하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데가 바로 우리 공보관실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말을 연속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충고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자치구별 불법음반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것은 2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약 5,000건이 되는데 그 정도 된다면 한 달에 평균 200건씩 이렇게 불법이 적발되고 있어요. 적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동일장소에는 명의만 바뀌어서 다시 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성동구는 꽤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거기는 고발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파적인, 편견을 가진 행정을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용산구는 건수도 적는데 고발이 24건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러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남상우; 이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문화관광국 문화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문서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남상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수복 위원; 아니어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 이송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해서.

○김수복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직원이 나왔어야 되겠죠?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죠?

○공보관 남상우; 네.

○김수복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엽 위원님.

○민경엽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식 처리하는 기준과 98년도에 비공개 처리된 신청 정보내역과 비공개로 처리된 그 사유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알겠습니다.

○민경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목적은 예산절감과 시정을

바로 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중시하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순서는 여정구 위원님, 민경엽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조양호 위원님, 최충민 위원님, 송태경 위원님을 끝으로 하는 그러한 순에 의해서 하고,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정구 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면이 있더라도 질문요지가 틀리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에 보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면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를 보면 실행예산이 3억 4,000여 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금년이 거의 되어 가는 입장에서 볼 때 집행액이 9,600만원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2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60%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8%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정도 되었다고는 보아져 다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집행해 나가는 데 이런 실수를 계속 저지른다고 봤을 때 크나큰 실수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것

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8%밖에 안 되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의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600만원은 지출이 되고 나머지 2억 4,420만원이 현재 미집행되었습니다. 즉, 28%가 집행되고 72%가 집행되지 않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냙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이 사업이 게임개발 하는 것입니다. 게임개발 선급금으로 9,6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 개발이 12월 말에 다 됩니다. 12월 말에 게임개발이 다 되면 2억 4,421만 1,000원이 집행될 것입니다.

○여정구 위원; 그 때 집행이 다 되리라고 보고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집행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정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10페이지, 시민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96년도에 7억 5,000여 만원을 97년도에 5억 2,000여 만원, 98년도에 41개 단체에 2억 6,000만원, 물론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졌습니다만 지금 많은 단체들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1가족 나무결연사업, 한가족 한사회 자원봉사 이런 좋은 사업들입니다만, 이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 사항은 각 소관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액사업,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

머지는 판단을 해서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자료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 자료제공은 해 드렸습시다만, 이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서울시지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도 제가 4대 때입니다만 그 때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새마을서울시지부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안 나타나 있네요?

○공보관 남상우; 새마을서울시지부에 혼잡지 교통정리 등 4개 사업에 2,500만원이.....

○여정구 위원; 여기 있군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와 150페이지를 보면 일·주간, 월간 구독현황과 예산 해서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는 주간지 같은 것은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동작구 등도 주·월간지를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월간지를 30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여정구 위원; 이렇게 각 자치단체인 구청별로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 간부회의를 열든

지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형평성이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 구청이 균형이 다시게 않고 어느 구에서는 주간지나 월간지를 많이 구독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여정구 위원; 차이가 너무 커요.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고하는 그러한 협조공문을 구에 보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에 대해서 명령이나 또는 통제를 할 수 없지만 권유하는 그런 공문을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요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자료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액도 보면 상당한 예산액이거든요. 어느 구는 미미한 금액인데 어느 구는 엄청난 금액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상부감독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정을 못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다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47페이지 불법 음반물 적발현황을 보면 양천구 같은 데는 시정을 509곳이나 했는데 다른 구는 안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509곳이면 300이든 200이든 이런 상황이 나와야지 너무나 편차가 큼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간부회의에서라도 꼭 말씀을 하셔서 시정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위원님, 문화과장하고 담당계장이 3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수감을 하도록 연락을 해 났습니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 때 자세하게 여쭙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면 지역신문 현황 해서 50개 신문사가 있는데 신문을 시 차원에서 구독하는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지금 현재 서울시내 지역신문사의 신문을 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정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여정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이 어느 지역은 너댓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실정을 파악하는 데 제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월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방법을 택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남상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민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엽 위원; 민경엽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사항 중에서 비공개 처리하는 유권해석을 서
울시나 또는 담당자가 어떤 행정이기주의적인 주관적인 판단
으로 인해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
까?

○공보관 남상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
회의 위원으로 공보관이 위원장이 돼서 주요과장, 총무과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대학교 교수, 위촉직 교수가 두
분 계십니다, 시립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
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도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공무원 자의로 제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98년 10월 26일 구성이 돼서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공개신청이 여러 건 들어와서 모아
서 해야지 한 명 신청이 들어왔다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
에.....

○민경엽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고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공개다, 부분공개다, 비공개
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군요.

○공보관 남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해
서 합니다.

○민경엽 위원;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했는데.....

○공보관 남상우; 10월 26일 규칙으로 제정된 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221면을 보시면 거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를 해 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민경엽 위원; 아울러서 비공개대상 정보범위해서 8가지의 근거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항부터 6번항까지에 대한 국가안보라든가 국민의 생명, 또는 재판과정 등 여러 가지 공무원 및 민간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리고 예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내부관리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공개 정보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가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한 법인이체 있고, 그 인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법인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요청했을 때 이것을 7번항에 적용시킨다면 상당히 서로의 의견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의 예를, 자치구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내가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러한 부분은 좀더 객관적인 유권해석을 좀더 세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말씀하시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겠습니까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라든가 규칙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이런 일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부분공개하는 사유 중에서 보면 자치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주의 자치행정을 하는 자세로 봤을 때 서울시 부분의 공개하고 나머지 비공개 부분이 자치구 것이라면 같은 처리기준이라면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완벽하게 세트로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부분공개 하는 이유가 자치구에 있으니까 자치구에 가서 또 한번 공개신청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자치구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민경엽 위원; 독립돼 있지만 결국 서울시나 자치구나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서울시 기준으로 봐서 공개대상이 된다면 자치구에서도 서울시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세트로 공개해야 되겠으니 자료를 달라든가. 그런데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공개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자치구가 못해 준다면 그 자치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보관 남상우; 그럴 수 있죠.

○민경엽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 분청이 자치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치구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위임사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협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공보관 남상우; 제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이예요.

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공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구에서 아주 강하게 거부한다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대상공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해 주는데 자치구에서 못해 주면 못하는 사유까지도 한번 그 문제를 서울시에 대라. 그래서 그 문제가 나중에 자치구에 있어서 뭔가 부당성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그 자치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탓 하지 말고 조금씩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우리가 Change, Competition, Custom, 3C 시대라고 합니다. 뭔가 변해 가는 모습을 서울시부터, 공보관부터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민경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는 정보화시대, 전문화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인데 우리 공직세계는 이를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인

사는 적재적소 인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100%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공보관실 편성을 보면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물 제작팀이라든가 출판관리라든가 보도기획, 홍보기획, 이런 등등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돼 있는지, 또 여기에 보직되는 공직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 하면 비전문가 보직시에는 업무효과가 감소하고 예산을 낭비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모르니까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두번째는 서울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여기 외국인 투자상담실 운영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자가 여기에도 전문가가 배치됐느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에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언어면에서나 상담분야에 관련된 지식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부서로 소개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언론 보도 활성화 대책이라고 공보관께서 업무보고하신 22페이지 보면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출입기자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

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서울시정은 상당히 방대한 시정인데 이러한 방대한 시정에 비해서 각 언론사에서 할애하는 지면이나 보도시간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큰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 책임간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수도권 동향에 대한 보도지면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또 방송시간을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발행한다든가 발간물을 지원하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경업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보관실에서도 직접 발행하는 홍보물이 4가지,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홍보물이 56종으로 예산이 약 15억 정도 되네요. 대충 훑어보면 각 실·국·과별로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홍보물의 종류와 특성을 분류해서 이것을 통폐합할 것을 통폐합하고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간행물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관 남상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보실에서 직접 발간하는 것도 4종류 아닙니까. 거기에 또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간행물이 56종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간행물도 유사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홍보물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건설적인 불용액은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불용액이 생기면 더 시급한 사업추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이상 판단에 미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물가가 급격히 하락되어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것을 100% 사용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건전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공보관 남상우;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절약과 서울시 예산절약에 대한 애정어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에 대해서 전문직 보직을 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는 전문직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들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영상물제작팀의 유영호 팀장은 원래 영화감독출신인데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팀의 직원도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만 우리 나라 최고학교의 사회학을 전공한, 대학원 문화석사까지

받은 그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월간서울이나 또는 주간시청뉴스를 만드는 데 있는 사람들도 한 분은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하다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인천신문에 있다 오신 분이고, 그리고 아나운서는 전주KBS 방송국 지가를 하다온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임용절차가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로 공정했는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여론조사요원 라급 하나 뽑는데 신문사에 공고를 하는데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뽑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제3기관인 대학교 교수님들로 한 3·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품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적부판단만 하고 성적순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확보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용절차는 우리 전문직 모두가 이렇게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홍보관에는 현재 외국인투자상담실에 산업정책과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해외유학을 갔다온 외국에 정통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어를 잘 하는 직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좋으려면 직접 바이어 생활을 한 분들을 모셔다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입기자들 위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출입기자 중심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채널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나오면 바로 논설위원님들한테 동시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논설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 보시고 논설에서 취급도 해 주시고, 이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춰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는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 수도권이나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우리 일간신문을 본 36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도권이 몇 면이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옛날에는 2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것을 의사결정기구에 있는 이사급 이상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요성을 홍보를 해서 우리 수도권 동향 보도를 지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머지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한 서울시 홍보는 이차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차원 높게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IMF 전에는 48면이 인쇄가 되어서 수도권 면이 2면씩 되었는데 요새는 32면 발행할 때도 있고 24면 발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줄다 보니까 수도권 면이 한 면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면을 넓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어나 또는 회사에 있는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안면관계는 한 17년간 언론에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출입기자를 무시하고 윗분들한테 접근을 하면 대단히 어려운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출입기자 중심으로 하되, 앞으로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사설이라든지 기회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물이 현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가지, 그리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5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을 발행할 때나 아니면 간행물심사위원회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각 소관 국의 홍보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해시켜서 간행물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불용액 장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썼으니까 그냥 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지갑에 있는 알뜰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쓰고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설령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쓰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구;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호 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제2회 서울이야기 수필 공모전 추진 항목이 나오는데 서울이야기 98년 2월에 발간된 것 공보관님께서 읽어 보셨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사실 못 읽어 봤습니다. 제목만 죽 봤습니다.

○조양호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읽어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쓰신 수필집이 실려 있는데 우리 나라에 살고 계신 외국인들이 주로 미국인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한 쪽에는 우리 한글로, 한 쪽에는 영어로 해서 실린 것은 봤는데.....

○조양호 위원; 외국인들의 수필집이 21건 정도 실려 있는데 제가 한번 국적을 살펴봤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니 미국인이 12명, 캐나다가 5명, 필리핀 2명.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일본인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은데 수필집이 어떻게 미국인들 중심으로 묶여졌을까 거기에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편집의도가 있으신 것이지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영어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인들이 영어실력이 아무래도 미국인이나 필리핀, 영국사람만큼 될 수 없으니까.....

○조양호 위원; 외국인들한테 서울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수필집을 내는 것인데 영어로 수필을 내라고 하면 일본사

람이나 중국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사람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의 홍보가 많이 되었지만 일본이나 중국, 이쪽 동남아시아인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보가 안 된 곳에 홍보를 더 잘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사람이라든지 중국사람들의 수필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일본어로 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꼭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양호 위원; 영어로 제한하셨다면서요?

○공보관 남상우; 주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일본어로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조양호 위원; 수필집이 1,000부가 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금년에 1,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조양호 위원;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직은 배부처를 확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1,000부만 토털로 잡아놓고 아직 배포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니다.

○조양호 위원; 작년에는요?

○공보관 남상우; 작년에는 500부만 했습니다.

○조양호 위원; 외국인들이 서울에 대한 수필을 쓰셨는데 배포처에 외국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300부를 가지고 각 대사관하고 우리 각 기관에 보내주고, 200부는 유상판매 되었습니다.

○조양호 위원; 작년에는요?

○공보관 남상우; 네. 500부 중에서 200부는 유상판매하고

300부만 무상으로 각 대사관, 도서관, 기관 이런 데 보냈습니다.

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라도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 미국사람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수필도 받아보는 것도 우리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홍보관에 외국인 투자상담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산업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발간해서 배포처가 시나 구, 동사무소, 시·구의회 의원,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에게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발송을 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주간시청뉴스는 국회의원들한테 안 가고 월간서울만 가고 있습니다.

○조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99명 국회의원 전체한테는 배포가 안 되더라도 서울에 지구당이 있는 국회의원한테는 주간서울시청뉴스가 배포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를 더 이해하고, 또 서울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고맙습니다.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월간서울하고 주간시청뉴스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그리고 점자판 월간서울시청뉴스 제작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1일 임시회 공보관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양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발생부수는 똑같더라고요.

○공보관 남상우; 발생부수는 3,000부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준비가 안 되는 부분은 보충답변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3페이지를 보면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간행물들을 제작한다고 보는데요.

이번 98년 9월 제8호 시민여론모음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문항을 여론조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편이다 12.6%, 대부분 잘 모르는 편이다 49.4%, 그러니까 무려 60%가 서울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행물들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공보관 남상우;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깊이는 몰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서울시민들 한 27%가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이고, 그렇게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여론조사 해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 놀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양호 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공보관 책임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래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책도 만들어서 더 배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위원; 그런데 책자도 여러 가지 만들고 그랬지만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 같은 것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게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정을 알리고 올바르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가 서울시가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꼭 전년도, 전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왔으니까 또 만들겠다라는 발상보다는 효과가 없으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홍보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중앙일간지에

서울시정에 대한 것이 119회 보도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죽 보니까 고건 시장 개인의 홍보역할 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여기 나온 것은 시장님 동정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것만 죽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서울시 전 행정에 대해 홍보된 것도 이것의 몇 배가 되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조양호 위원; 부시장 3인에 관해서 보도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몇 회 정도나 보도가 됐죠?

○공보관 남상우; 행정1부시장님과 행정2부시장님은 언론에 타는 것을 별로 중시하지 않으시고 달가와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향이시고.....

○조양호 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이 언론을 타는 것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서울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부시장님들 업무가, 또 행정조직 자체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지 부시장님도 참모의 한 분이신데 이렇게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양호 위원; 일반시민들은 고건 시장님은 아시는데 우리 서울시에 부시장이 몇 명 있는지, 또 부시장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시장님도 아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개인의 호불호를 따지기 전에 부시장으로서 언론의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올바르게 서울시민들한테 알린다는 책임감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부시장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문 언론매체에 신계륜 정무부시장에 관해서도 전혀 보도가 안 돼 더라고요.

○공보관 남상우; 요새 신문이나 또는 동정란이라든지 TV방송을 통해서 정무부시장님의 활동이 방영되고 보도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계륜 부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양호 위원; 신계륜 부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요, 신계륜 정무부시장에 관련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들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이라는 게 정당, 집권당인 국회의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역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과연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이 뭔지, 부시장이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세 분의 부시장님이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힘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고건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정무부시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도를 하도록 언론매체들에 종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부시장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그것이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8페이지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서울시정에 대한 주요 보도내용 중 62번을 보면 8월 4일자 경향신문에 사무직 100만명 일자리 제공하겠다, 취임

한 달만이라고 인터뷰 하신 것 같고요. 또 73번에 보면 8월 21일자 국민일보에 3년간 120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8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사무직 100만명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고건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사전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님 하고 상의하시고 협의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도시정보화사업으로서 서울시에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실업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100만명 일자리를 만들고, 또 8월 21일에는 3년간 120만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위원; 올해는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줬죠?

○공보관 남상우; 올해는 현재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한 밀레니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업체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신산업을 발전시켜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조양호 위원; 공보관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선 일자리를 100만자리, 120만자리를 3년 동안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는 지금 IMF 경제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추상적이고 구호남발적인 공약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러한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옆에서 인터뷰 하기 전에 협의라든가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

다.

○공보관 남상우; 네.

○조양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79번에 보면 8월 29일자 매경에 경평축구 다시 열자고 서울시가 평양에 제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 답신이 왔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 8월 29일 경평축구 다시 열자는 것은 저희 시장님이 그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11월 6일에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공보관 남상우; 1946년에 10월을 끝으로 7회까지만 하고 경평축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양호 위원; 8월 29일자 매경은 누가 제의를 한 거죠?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그 때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양호 위원; 여기 8월 29일자 매경에 경평축구 다시 열자고 서울시 평양에 제의했다고 79번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공보관 남상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박스기사로 경제신문 기자가 쓴 것을 내놓은 겁니다, 시장님이 한 게 아니고요.

○조양호 위원;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쓸 때는 자료가 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자료가 없었습니다.

○조양호 위원;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썼다구요?

○공보관 남상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

히 말씀드리지만.....

○김광수 위원; 시장님이 확실하게 제안을 했어요.

○공보관 남상우; 제안을 못했구요. 이번에.....

○조양호 위원; 그러면 8월 29일자 매경신문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공보관 남상우; 네, 11월 6일.....

○조양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 월드컵경기장 기공식 때 시장님께서 경평축구대회 다시 열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의를 하셨는데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8월 29일자 매경에도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경평축구대회를 다시 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천 가능하고 실천 가능해서 얘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평양에 가서서 평양에 실내체육관도 지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또 경평축구는 정치적이 아닌 순수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지금도 우리 배가 금강산을 관광도 하는, 엇그제 간첩선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좋은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교류를 통해서 북한과 보다 더 화해할 수 있고 서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으로 했고요.

지금 평양측의 반응은 제가 통일원하고 안전기획부하고 외교통상부의 사무관한테 일주일째 전화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양에서 엇그제 토요일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양호 위원; 제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건 시장님께서 경평축구대회를 다시 열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좋은 제안이고 그렇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돼 있고, 물론

관광유람선이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하고 있지만 지금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측하고는 회담을 안 하고 민간인 교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평축구대회 다시 열자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인데 고건 시장님께서 이것을 실천가능한 제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기성 발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고건 시장님께서 이런 제안들을 할 때는 좀더 실천가능하고 실제 가능한 공약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경평축구대회를 다시 열자 이런 제안을 할 때 안기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 없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사전에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양호 위원; 협의를 했으면 어떻게 공문으로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협의를 했죠?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위에서 결정되었는데 협의 끝난 것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양호 위원; 협의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않습니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이런 제안들을 하시면서 중앙부처, 즉 안기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문서들이 있으면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고건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는 시장님으로서는 무책임한 제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남상우; 지금 이런 북한에 대한 제의를 할 때 서울

시장님 입장에서 대통령 각하의 뜻을 듣지 않고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에 다 보고 마쳤고요. 사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제호를 확정받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서 협의할 때 이것까지 전부 협의를 끝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서류를 보지는 못했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조양호 위원; 협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인기성 발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이 정말로 남북한 간의 화해와 점진적인 평화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평추구를,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을 앞에 놓고 우리가 북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평양측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조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고맙습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은;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보면 시에 출입하는 언론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신문 등 기타언론사 7개사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부스는 현재 4개가 있고요. 자유부스라고

해서 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부스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한성일보, 현대일보, 제일경제, 시정신문, 교통방송, 일간건설, 서울시정신문 이런 신문사에서 가끔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기타 7개사 해서 이름이 안 나온 신문이 있어요. 19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정신문 98년 9월 3일 10시 30분 편집국장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주간지로서 인터뷰했구요. 98년 10월 26일 또 서울시정신문 제 5회 서울시민의 날과 서울시정신문 창간 4주년 축하메시지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신문 등 기타 언론사 7개사에 들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아까 아침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신문, 서울시정신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간보사라고 한 것이 오·탈자가 나왔습니다.

○최충민 위원; 감사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4,000건 이상이 되고, 지정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견도 있는데 모니터 활성화방안 추진실적 중에 서민생활안전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민선시정 1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분야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정 2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가 나와 있죠?

서울시민의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실업대책으로 28.1%가 나와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거주하는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보관실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여론이 서울시민 1,000만 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서 책자를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좋은 말씀입니다.

○최충민 위원;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실업대책은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아까 조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0만 명 실업구제를 하겠다 어찌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건 시장이 하셨던 말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 공보관님, 맞죠? 시인하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근거자료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공보관 남상우; 여론조사를 해서 실업대책상황실과 산업경제국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내면 거기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그것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건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감사합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민에 대한 조세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없습니다.

○최충민 위원; 공보관님, 서울시민의 10명 중에 7명에 8명 정도가,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75%가 조세의 불공평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보관님한테 부탁이면 부탁인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단체나 또 어느 연구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이전에 공보관님이나 공보관 직원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서 여론조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조세형평성, 불공평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공보관 남상우; 여론조사 요목을 정할 때 위원회에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꼭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서울조세제도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하다 하신 분이 서울시민의 75%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정의 객관적인 사항, 즉 객관적인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몇 % 정도가 서울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일반시민들에 대한 반응만 저희들이 해 왔지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충민 위원; 민선2기 여론조사에서 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 시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희망이 없다, 서울에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분들이 67%나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체제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위기의식을 깊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민의 아픈 곳을 여론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의 깨끗한 행정, 공개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4지상선거 이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앞으로 매우 나빠질 것이다, 어느 정도 나빠질 것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일보 16일자에 나온 얘기를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있는 행정업무 서비스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서울시민의 몇 %나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직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충민 위원; 서울시민의 팔십몇 %가 시정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7일자 봐보세요.

쉽게 말하면 10명이면 9명 정도는 시정 이것 불만이다, 서울시가 아주 형편없는 시정을 하고 있다, 세금도둑, 공개되지 않는 행정으로 해서 그 공개되지 않는 행정정보를 공무원들 자기네들만 가지고 그것으로 땅 투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 10명에 9명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말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의 제2건국 선언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여론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고 시장이 지난 6·4선거에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공약모음집은 봤습시다만, 몇 가지인지는 제가.....

○최충민 위원; 공보관님께서도 몇 가지인지 모르시는데 하물며 서울시민이 고건 시장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조사했는데 고 시장의 선거공약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작 21%입니다. 거기 계시는 직원들 10명이면 두 사람만 알고 여덟 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도 고건 시장의 가장 중점적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서울시민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선거공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니까 고건 시장이 좋은 정책을 갖고 서울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정책을 서울시 시민들에게 펼쳐보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연결된 거죠. 그 행정을

왜 홍보를 못합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결정된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공약사업이라고 따로 부기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공보관 남상우; 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안 했고 3터널에서 혼잡통행료는 한번 해 봤습니다.

○최충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0부제 하고 있죠?

○공보관 남상우;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어쨌든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90% 가까이가 10부제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참석하는 차는 4만대입니다. 그래서 그 4만대 안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최고의 서울시 수장이랄 수 있는 고건 시장도 10부제를 안 지켰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월요일에 꼭 지하철로 출근하시고 10부제를 지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초기에는 서울시장님이 10부제를 안 지켰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부제 안 지켜서 기자들이 촬영하니까 부랴부랴 10부제 문제 있고 10부제 스

티커 발부한다고 그랬죠? 서울시 관용차가 10부제 외면한다고 8월 14일자 국민일보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10부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1,0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10부제 운영할 정도 되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면이 있죠?

○공보관 남상우; 실질적으로 10부제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있으면 10부제의 실효성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통제는 우리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주행세라는 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스스로 유류도 아끼고 10부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10부제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10부제에 대한 메리트는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이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잘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여론조사 해서 홍보활동에 있어서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보고서 같은 것 혹시 만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600년사업이라면 그것을 하고 나서 평가하고 자체 시정될 부분, 지적된 부분 그런 것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저희 공보관실 원래 업무가 그런 사업평가나 또 심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해 본 적이 없고, 한다면 시정개혁단이라든지 감사실 이런 데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충민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 운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상담소가 있죠?

○공보관 남상우; 네.

○최충민 위원; 홍보 건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파견근무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관리 분야의 인력을 늘리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대한 홍보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은 제 말에 찬성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에 상담을 약 460건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6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이런 데서 보통 20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460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투자상담실에서 상담하지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료를 보내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경과 LA와 북경, 그리고 파리에는 주재관이 나가 있어서 주재관들이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투자상담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 관광안내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을지로에 10명 정도 되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했죠?

○공보관 남상우; 네,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안내원을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수한 주부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에 능통하고 대학 졸업해서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그런 데서 구해야지 어디 복잡한 데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부들 중에 외국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 관광가이드 희망하는 분들 많습니까. 그런 분들 쓰시면 되죠. 쓰실 용의도 있죠?

○공보관 남상우; 위원님의 높이신 뜻을 문화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광전문잡지 기획광고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관광전문잡지에 외국어로 해서 직접 서울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동경에 비해서 우리가 관광안내소 주재관 파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을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우리가 미국, 중국, 유럽에 나가있는 숫자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도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구;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평상시 업무보고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계서는 좀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답변을 그 순간을 면해야겠다는 이런 보다는 뒤에 팀장이니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네.

○위원장 김종구; 계속 질의하세요.

○최충민 위원; 서울시에서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적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결과를 혹시 우리 공보관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최충민 위원;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장묘문화개혁범 국민협의회를 출범했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최충민 위원; 출범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 셧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일본이나 중국은 100% 내지 99% 화장을 하고 우리 나라는 현재 23%입니다. 서울은 30% 화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2% 인가가

앞으로 화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내용을 월간서울, 시청뉴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저는 상당히 과장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지난 사회 저명인사들 약 30여명이 화장 유언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화장묘지가 더 이상 사회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묘문화 개혁운동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회 서영훈 회장님과 서울대 보건대학장 이 분들이 우리가 매장문화의 오랜 전통으로 묘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며,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로 더 홍보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장묘문화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작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오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찬성해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호화분묘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화장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례를 고치고 그러는 것은 제가 다 아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옛 관습을 존중하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묘지난 해소로 화장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41.9%입니다. 국토 효율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이 18.5%, 호화묘지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4.9%, 묘지관리가 문제됐던 사람 12.6%, 자연보전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8.4%, 경비절감을 위해서 4.4% 인데 화장문화에 대한 찬성도가 공보관님께서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50대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한국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50대 이상이 50%가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많으니까 그런 관계된 홍보를 독자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아닙니까. 전국민을 상대로 진지한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즉 질의하고 동료·선배위원께서 질의한 결과 서울시 공보관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남상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최충민 위원; 84명 가지고 홍보기능, 보도기능 다 하는데 체 나름대로는 조직의 홍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략에 대한 민간인 아이디어를 거의 활용할 수 있는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최소한도 민간인에 대한 자문이랄까, 쉽게 말하면 관계된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시에 홍보요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전문화가 낮아요. 동경이나 파리보다 우리 나라가 2.3배나 적어요. 공보관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보관 자체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순환보직 돼죠? 안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물론 순환보직 됩니다.

○최충민 위원; 그런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공보업무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성을 요하는데 몇 년 있다 바뀌고, 몇 년 있다 바뀌면 공보에 대한 전문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관 남상우;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26년 간 합니 다만 사무관 10년 중에 공보를 2년을 했고요, 서기관 8년 중에 공보를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가 속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니까 8년 동안 2년 했으니까 전문가 어

짜고 하는데 공보관님이 좋은 머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가 실행되다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복잡하고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아우트라인만 정해 주고 공보관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재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을 헛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과목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서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많은 조직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하나의 예산 자체가 일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요.

다음, 서울시의 공보기능은 홍보기능보다 보도기능적 수행이 더 많아 홍보업무가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제가 공보분야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은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보나 보도나 제가 중시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서울시에서 홍보물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교통방송은 서울시 직영 방송매체가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최충민 위원; 교통방송에 충분한 공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가 있죠?

○공보관 남상우; 지금 교통방송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짜고 또 계획적으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교통방송은 운전자들의 60% 내지 70%가 듣고 있습니다.

또 민간홍보대행사와 협력체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저희들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각 과에 있는 사무관들과 그리고 구청의 공보담당과장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한국피알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루종일 홍보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기법 이런 것들도 원용해서 교육을 저도 같이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드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서울알리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민간부분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자체는 인적, 물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협력 부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공보관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05페이지 상업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추진 해서 상업매체로서 TV, 신문, 옥외

전광판 등을 시정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방송매체에서도 보도자료에 의한 소극적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방송광고도 미비합니다. 공영방송을 통한 고정 시정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것이 좋겠고, 영상매체는 양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동매체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지하철역 고정광고판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2,770개가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공보관 남상우; 한 량, 두 량 하는데 그것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열린서울 열린미래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매체에서도 보니까 신문·잡지광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죽 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남상우; 알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옥외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옥외매체 설치공간 확보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전광판 같은 것은 문안표출권이 공보처로부터 지금 현재 서울시로 이양이 된 것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지금 전광판은 서울시 33개 업체에서 69 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출되는 것은 공영이 40, 광고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전광판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의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부탁만 하는 것이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에 서른 세 분 중에서 이십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대접을 하면서 전광판에 서울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표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보다는 지금 현재 15조 내지 20초씩 서울시 홍보를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관계를 잘 해서 계속 표출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통신매체나 대인매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통신매체에서는 현재 PC통신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인터넷하고 PC통신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는 그때 그때 아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국제적인 도시다,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현재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최충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공보관 남상우; 지금 뉴스월드하고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영어잡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월드는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임덕규 씨가 운영하는 디플로머시에

이번 12월에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지 특별히 해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충민 위원; 국제화에 맞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외공관을 통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 자매도시가 있죠? 자매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자매도시에도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여기에 와 있는 외국공관에 전부 자료를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지 다른 특별히 그 분들을 모셔다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충민 위원; 그런 분들을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관을 통해서 홍보물을 국제화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책자로 보내 주는 것, 그 다음에 국제선에 다 비치하고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관광박스에 갖다 좋고 외국인들한테 그렇게는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홍보기능이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정보수집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사를 가지고 홍보분야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맞습니다.

○최충민 위원; 특히 교통이나 주택, 도시계획 이런 홍보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여론조사가 더 많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찾아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반영하고 그것을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 문화적인 도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습시다만 마지막으로,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5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홍보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책자를 나누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기법에 대해서 KPR을 통해서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최충민 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을 PR맨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 좋은 홍보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 고급공무원들을 홍보자원화 시켜서 홍보활동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고맙습니다.

○최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여론조사하고 홍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더 지적드릴 사항이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마지막 질의를 송태경 위원이 하시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관계서 답변 중에 2년, 2년 공직생활 동안에 공보업무를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서 2년, 2년 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1986·7년도 내무부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는 과장제도가 없을 때 국장 밑에 사무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공보계장을 했고요. 93년 94년 2년 동안 내무부 공보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시에 와서 8월 12일부터 공보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잘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감사위원님들도 삼선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송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 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빼고는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8년 8월 12일 인사발령 받으셨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허위증언이나 허위자료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제재가 있다는 것 아시죠? 선서도 하셨고?

○공보관 남상우; 네, 선서했습니다.

○송태경 위원; 어제 비상기획관 감사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는지, 평가라든지 들으신 내용에 대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지난 토요일 저희들은 감사준비도 하고, 또 시장님 인터뷰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여기에서 10시 20분에 눈이 막 내릴 때 그 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4시 쯤 됐는데 비상기획관실 감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가사무에 대한 업무지만 깊이 질문도 많으시고 유익한 시안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 정도 들으셨어요? 그 이상 들은 것 없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저희들도 바쁘게 저희들 업무를 하느라고.....

○송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내가 지적한 것이 능력이 없다든지 의지가 없으면 자리를 떠나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 줘야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또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 비워 줘야 됩니다. 그게 공직이 최고의 서비스업종이 돼야 되는 정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머릿속에 담다 두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공보관계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능력이 없다든지 의지가 없으면 자리를 떠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계서는 동의를 하시냐구요?

○공보관 남상우; 경쟁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 위원; 안 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시정을 안 알려고 그러니까, 못 알려줘서 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대 50으로 봐서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지금 복잡다기한 사회 속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시민들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후련한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프로를 보더라도 중요한 뉴스 외에는 에로물이라든지 또는 연속극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복잡한 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안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송태경 위원; 알 기회가?

○공보관 남상우; 알 수 있는 기회가.....

○송태경 위원; 알려 주려고 해도 안 알려고 하고.....

○공보관 남상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안 알려고도 하고 또 못 알리는 것도 있고요.

○공보관 남상우; 네, 저희가 못 알리는 것도 있고요.

○송태경 위원; 만약에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로나 이런 쪽을 자꾸 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딱딱한 그런 것을 누가 알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서울시민의 86%가 시정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일간지의 여론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다가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뭐하려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글썄요, 지금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나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이런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우리가 투명한 발전된 어떤 무지개빛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텐데 사실 우리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송태경 위원;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것을 찾는 데다가 즐겁지 않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좀 그래도 보려고 할 텐데 TV만 틀면 정경유착, 도둑질, 사기, 거기에 뇌물수수, 금품수수, 공직자가 100억씩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서울시 공보관실에서는 10억이라고 말이지, 그것을 또 사업에 실패라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놓고 견해차이를 벌이고 있다고 그런 조잡스러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달려 들어서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적인 것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장난질이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억지로 논리를 맞추는 것이지 내 부인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공보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다른 내 형제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자기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텐데 손해나 끼치고 스트레스나 받고, 도둑질 해 먹었다고 하고 뇌물 받아먹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것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알려 줬잖아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뭐하러 들겠어요?

동의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송태경 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안 알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하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깜짝쇼나 원맨쇼처럼 배우처럼 연출하는 공직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진실된 것을 홍보하지 않고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 다른 공직을 갖고 있거나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같은 공보 쪽의 일을 하면서 기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보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에 있는 입장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그럴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실을 믿고 따라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진실 외에는, 그리고 자기가 행동으로 한 것 외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기자들도 진실을 밝혀서 활자화시키는 것이고 저희들도 진실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울시 행정의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책임이고 공보관실의 의무입니다.

니다.

○송태경 위원; 알릴 내용이 있어야죠.

○공보관 남상우; 그래서.....

○송태경 위원; 아니, 조례 개정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조례개정 된 법적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하고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던데 시청뉴스가 나가는 것보다는 각 구에서 區紙가 나가거든요. 구정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평소식이라든지 강남소식, 까치소식 해서 나가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한 면 정도를 받아서 계속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시청을 같이 홍보하라고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그런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지금은 형하고 아우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재산을 분배해서 내 재산 네 재산을 갈라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민도 되지만 강남구민도 되고 중구구민도 되고 대한민국국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만 자꾸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서 소요되고 낭비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싸매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 1/3로도 줄어들 수 있고 1/2로도 줄어들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투명성 있게 제공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걸려져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9시 땡뉴스는 없어졌죠? 87년도에 계셨으면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하는 것 아시겠네요. 9시 땡하면 전두환대통령은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대머리 훌쩍 벗겨진 사람, 총잡이 칼잡이 해 가지고 총칼 넣어 가지고 정권을 뺏고 말이죠. 살인을 저질러서 했던 사람들 말이죠. 지금은 감방에 갇다왔으니까 이것은 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 속기록에 다 남는 건데.....

그런데 땡뉴스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는 땡뉴스 안 하거든요.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각 방송사도 상업방송사입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부분을 방영해서는 다 돌아갑니다.

○송태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 정부가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86%가 서울시정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정말 자기가 내 생활에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그 사람이 낸 세금을 내가 다른 데로 그냥 시공창에 집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3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창출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본위원도 얼마 전에 국정홍보라는 것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언론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공보관계서 내무부 공보계장, 과장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86년도 그 당시에 제가 공보계장을 했고, 87년도 4월에 4·13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때.....

○송태경 위원; 그 당시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제가 말씀드릴 것은 87년도 6·29선언 전과 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9 전에는 아무래도 통제가 많았습니다.

○송태경 위원; 어떻게 통제를 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예를 들면 기사가 정부에 대해서 기분나쁜 기사 이런 나오면 공보처라든지 또는 기관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이런 정도 됐었고, 6·29 이후에는 기자들이 용납을 안했습니다. 많은 분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때 87년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88년 2월에 노태우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때 6·29 이후부터는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자연적으로 분출돼서 언론이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6·29 이전에 하던 방법이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내용이 나가면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공보관 남상우; 저는 내무부에서는.....

○송태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론에 자꾸 얘기를 한 것, 아는 사람을 통한다든지 해서, 금방 말씀하셨죠?

○공보관 남상우; 그 당시에는 공보처에 담당관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신문사나 방송사에 얘기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또 다른 방법은요?

○공보관 남상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일절 없었어요?

- 공보관 남상우; 저희는 없었습니다.
- 송태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그 방법을 취하고 있죠?
- 공보관 남상우; 전혀 안 그렇습니다.
- 송태경 위원; 서울시가 지금 그거 안 해요?
- 공보관 남상우; 안 합니다.
- 송태경 위원; 뒤에 가서 그것 위증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군사독재정권의 그런 언론 통제하는 방법하고 국민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공보처를 폐지한 것 아세요?

- 공보관 남상우; 네, 이번에 국민정부에서.....
- 송태경 위원; 공보처 왜 폐지했습니까,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보처가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공보관 남상우; 폐지가 돼서 공보실로 총리산하에 발족됐습니다.
-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공보처는 폐지가 됐죠?
-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 송태경 위원; 왜 폐지시켰나요?
-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송태경 위원; 그건 몰라요?
- 공보관 남상우; 네.
- 송태경 위원; 이런 거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6·29 전과 이후 그 전에는 공보처에 그런 기관들 놔 가지고 언론사 세무사찰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강제로 해서 자기들한테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언

론사를 죽이려고 그런 작전들 하고 그러던 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화 과정을 죽 지켜오면서 국민의 정부에 와서는 도저히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은 정부 자체가 의지로서 안 할 것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 끊은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면 이유를 대보세요. 본위원의 얘기가 틀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처를 폐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왜 폐지를 했는지는 말직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송태경 위원; 아무것도 몰라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은 가능한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공보처를 왜 폐지했는지 그 당시 언론에 나온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공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까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요.

공보관이 공보처 폐지한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복잡하고 애매한 답변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가 무슨 일반 유흥가 다방인 줄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공보처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태경 위원; 공보처를 폐지한 이유를 전혀 몰라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공보처를 폐지할 때 무슨 내용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나왔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기구조정할 때 기구가 방만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것도 하나죠. 그러면 서울시 기구에서도 공보관이 방만하니까 그것은 정부시책하고 맞춰서 없애야죠.

자료 409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계획단계부터 자체홍보계획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공보관의 검토 후 홍보일정 방법 등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몰라요? 찾아보세요. 399페이지에도 있네요. 주요시책 수립시 사전에 홍보방법을 공보관과 협의 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주요시책 계획단계부터 자체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못 찾겠어요? 이런 것 보고서에 냈어요, 안 냈어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종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부추진계획 시정홍보체계 일원화에 다른 기관에서 정책을 할 때 공보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태경 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정부는 공보처를 폐지까지 해서 국정홍보방법을 정말 국민에게 진실된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근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86%가 거부를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본인들은 시정조치도 앓고 말아야. 정부시책하고 역행되게 지금

도 이렇게 기구를 84명씩이나 정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만 말씀하세요.

공보관실요, 폐지해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보관을 과 정도로만 낮추고 계 하나로 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장난을 칠 때가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18페이지를 봐요. 이렇게 자기들이 '98홍보 정책방향 정해 놓은 것 보고해 놓고도 이 두꺼운 것을 몇 번씩 뒤집어보는 위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몇 십명씩 앉아서 이것 하나 공보관한테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도 못합니까?

거기 보세요.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시정보도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체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며....., 의무예요 의무.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공보관이 검토 후 홍보일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서울시장 밑에 바로 공보관이에요, 공보관. 예전에도 내가 기구 조정할 때 틀림없이 부시장 하나 더 생긴다고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필곤 씨한테.

주요정책 결정 집행과정을 기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높여 오보를 예방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것도 뒤에 보면 헐박까지 해 났어요. 공무원들 헐박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불쌍한 공무원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것처럼 하느냐 이거예요. 업무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얘기해 보세요. 그것 찾느라고 좀 헛갈렸는데 찾았으니까 조금 낮네요.

○공보관 남상우; 공보관이 시에서 주요한 정책들이 외부에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문에 보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송태경 위원; 주요시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요시책 기준 하나 내놓아 보세요. 주요시책 기준 했을 것 아니에요. 주세요.

주요시책 계획단계에서부터 했으니까 주요시책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강 언어의 유희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정이 이렇게 가니까 개판 아닙니까? 주요시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자료 지금 주세요. 그 주요시책이 나와야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라도 짠 것을 가서 들어가서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쥬 보세요.

내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답변을 들을 테니까 주임이든 주사든 아무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좋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주요시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느 서울시정 업무까지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내놓아 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주요시책에 대해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개는 상위직인 시장님 결재를 받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요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시장결재 받는 것에는 모두 공보관이.....

○공보관 남상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상위직급의.....

○송태경 위원; 시장, 부시장 결재 안 받는 것이, 거의 올라가서 받지 안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공보관 남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송태경 위원; 뭐가 안 그래요?

○공보관 남상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태경 위원;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계획서만 짜서 무조건 이쪽에서 시민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억지로 돈 쳐들여서 지하철에 깔고, 전광판 업자들 불러서 협조요청이나 하고, 40장인가 50장 그런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실·국장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요시책은 부시장급 이상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 누가 정했어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따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고 보통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고요.

○송태경 위원; 좋아요, 됐어요.

의무화는 누가 정했어요?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결재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한 결재서류 내놔요. 알았죠? 지금 결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은 결재받았다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무화로 강제규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82명인가 83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84명인데 2명이 오면 86명이 됩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84명이죠? 이 인원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옛날 통폐합되기 전에 하수국 직원이 사업소 빼고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70명 돼요. 공보관이 하수국하고 맞먹습니다. 서울시 전체 업무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방대한 인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기

능은 시민에게 필요도 없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거부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공보처 폐지했잖아요. 내가 시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거예요. 폐지하는지 안 하는지 한 열흘 기다려 보세요, 안 한다면 그것은 내가 끝까지 할 테니까.

자료 17페이지, 둘째 시정홍보는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자체 홍보수단 및 기법을 개발 활용하여 홍보역량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료 맞죠?

○공보관 남상우; 네, 맞습니다.

○송태경 위원;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본업이죠? 공직은 봉사라고 그러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봉사하는 사람이 나 이거 했습니다하고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자기가 일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뭐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홍보기능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양하게 국민의, 시민의,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봉급 받으시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 봉급 받아서 뭐하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쭙 볼게요.

사모님하고 자제분들하고 생활하시죠?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데요. 저도 의정활동비 주는 것 하고 의회가 있을 때 여기 하루 나오면 6만원 일당 주는 것 가지고 저도 그것 가지고 교통비도 쓰고 이렇게 복사비도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자랑 못해요.

그런데 의원은 자랑을 안 하는데 공무원이, 시장이 자기가 뭘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돈을 몇 십씩 쳐들여가지고 홍보하고 말이야. 뭐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시장을 누가 뽑아 줬어요? 서울시민이 뽑아줬지.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서울시민이지.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부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시정발전이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변화요? 없습니다.

개혁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 처자식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돈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수입되는 것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살자 말이야,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에게 늘 감사하고 일만 하면 돼요.

정보공개, 그거 우기면 안 돼요. 국민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고 열심히 하면 언론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에 따라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아까 공보관 폐지문제는 사실 행정관리국 정도의 다른 과 정도로 하고, 홍보과 두고 계 하나 해서 보도담당관 쪽은 그 쪽으로 흡수시켜야 됩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거예요. 엇그제 시장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봤는데 할 거예요.

행정은 투명성과 합법성 있게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양심과 근무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좋으면 되는 겁니다.

왼손이 도둑질 한 것을 오른손이 가서 커버해 주고 잘 했다고 어영부영 앓아 있으니깐 안 믿는 거예요. 불신만 쌓아져서 안 하려고 그래. 공직 쪽에서 알려주고 하려면 일단 60%, 70%는 못 믿는 것으로 접어두고 2·30%에서 이 중에서 몇 %나 믿을까 말까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강제로 늘어놓고 하라고 하니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연구하신 게 있으면 본위원회한테 가르쳐 주세요. 본위원회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시라구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매월 30회 1일 1회 이상 여러 종류의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으시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기자설명회를 하다가 판 날 지경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1일 1회 이상이에요. 매월 30회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일 2건씩은 평균 기자회견을 해요. 통계자료 나한테 준 거니까 다른 분이라도 해 보세요.

위원장님, 공보관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9급 공무원이든

6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담당공무원이 답변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사무관까지만 되나요? 좋아요. 자료가 나온 거니까 자료를 모르실 것 같아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법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죠.

매월 30회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회밖에 안 되니까 1일 2.7건 돼요. 기자설명회인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가서 설명해 봤자 기자들이 알아주거나 합니까?

○공보관 남상우; 평균 일주일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데 자료에 근거하면 매월 30회 1일 1회 이상이 된다니까요. 여러 종류의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구요.

○공보관 남상우; 네, 합치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정규로 하는 게 네 번이고, 수시로 하는 게 보통 3·4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11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송태경 위원; 그렇죠, 많다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더 계속하시고.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하시고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보관 남상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송태경 위원; 그래서 각 실·국이 주 2회에서 4회로 늘리셨다 이거죠?

○공보관 남상우; 네, 적극적으로.....

○송태경 위원; 한 6회 정도 하시지 그러세요?

○공보관 남상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만 보고 앉아 있으면 시민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깐 얼마나 알려주던가요?

○공보관 남상우; 수치로는 나올 수 없죠.

○송태경 위원; 거의 안 나오니까. 기자들이 이것 알려 주면 자기들이 신문사에서 쫓겨나는데, 틀림없이 오보될 텐데 뭐. 아니, 서울시가 홍보한 것 제대로 맞는 것 봤어요? 자기들이 쓴 것, 기자들이 쓴 것 오보라고 악쓰는 판인데 서울시 한 것 잘못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오보라고 하면 신문사에서 바보 같은 인간아, 가서 그런 것이나 취재하고 왔냐고 그럴 판인데 그걸 누가 써주겠느냐구요. 그런데 가서 기자들만 만나. 기자들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기자를 사랑해야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횡수만 계속 확대하시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시정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본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기자들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취재하러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회, 4회 계속 늘어나면 시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이 기자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집계를 해 주세요.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지, 시간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지 해서 건수별로 해 주세요.

그리고 매월 350건 1일 1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보도자료 내다가 판 끝날 지경이라고 본위원회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보도자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민들에게 정보가 되는, 예를 들면 교통통제가 된다든지 또는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바로바로 자료를 내서 제공하기 때문에 자료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하시고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보도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1년 예산을 산정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 시간에 앉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소요비, 인쇄비, 하여튼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항목들은 모두 집어넣어서 계산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더 하시겠다니까 하세요.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되니까 하시라구요, 그 대신에 자료는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일은 앓고 본위원이 보기에겐 시장에게 잘 보이는 일이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증거가 하나 있는데 예산이 10% 이상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 내용이 불량해요.

96년도 불용액을 보면 사업변경해서 서울시 부채백서는 안 만들었던 말이에요. 재난예방 홍보만화 계획은 변경했어요. 이번에 시장 지침에 의해서 소방방재본부 순시하면서 이 부분 지적했죠? 고건 시장이 지적 안 했나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닙니다. 소방수첩을 이번에 만든 것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올라와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다.

○송태경 위원; 좋아요. 재난예방 홍보만화 하는 것도 계획을 변경에 했고, 지하수 개발과 보존, 이런 것도 안 했고, 약물 오·남용 예방 이런 것도 제작을 안 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가 구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꼭 알아야 되고 시민은 꼭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은 꼭 알아야 되겠는데 서울시는 골치 아프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것이 나가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앓는다는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경 이유하고, 이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은 답변을 못하시겠죠?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98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군요.....

○송태경 위원; 96년 것이라니까요.

○공보관 남상우; 96년 것인데 글썄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뭘 파악을 해요? 내가 지금 뭘 물었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소방수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태경 위원; 아니, 그 옆에 들은 분들이 있죠? 지금 담당공무원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뭐냐 하면,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계획 변경 이유하고 이 사업 때문에 그 당시 불용처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또 97년 것을 묻겠어요.

건축안내책자 제작계획 변경을 했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소방수첩은 97년에 세워져서.....

○공보관 남상우; 97년에 취소해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앓고 어떻게 기자들한

테 가서 보도자료 하루에 14건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시민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과 일의 경중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편리한 사업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냐, 서울시민이에요.

그 당시 공보관계서 안 계셨기 때문에 자리에서 곤혹스러운 것 잘 아는데 마지막에 가면 더 죽어요. 이것도 이유를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서면을 가지고 그 좋아하시는 기자들과 내가 한꺼번에 싸워드릴 테니까.

그리고 99년도 공보관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담당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보관 축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서울시 본청만 보면 98년 일간신문대가 1억 1,540만원이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월간신문대금으로 1,000만원 들어가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줄인 것입니다.

○공보관 남상우; 집에서 거의 보고 나오는데 업무시간에 볼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문 갖다 놓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언론기관에 대한 예우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가 조정을 안 해주면 특정신문에만 전부 몰리고, 그리고 출입하는 기자들도 오는데 자기회사 신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
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과에 조간 3개, 4개, 석간 2개씩 들어가던 것을 석간은 하나, 큰 과는 2개, 그리고 조간은 3개에서 2개 정도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이것 1/3 정도 줄여야 된다고 본위원회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의회 신문대금은 몽땅 줄이라고 그렇게 해 봤어요?

○공보관 남상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송태경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구청별로 구독현황을 볼게요.

종로, 중랑, 강서, 서초는 주간지 구독부수가, 은평, 서초, 강동은 월간지 구독부수가 타 구에 비해서 10배 정도씩 많아요. 그런데 마포구와 동작구는 주간지와 월간지는 한 부도 구독을 안 해요. 그렇다고 또 일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도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예산권과 운영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알아요.

○공보관 남상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권유하는 그러한 공문을.....

○송태경 위원; 서울시도 같이 내 자신부터 그 형평성을 찾아서 하면서 계도를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너희들 하라고 하면 듣겠어요? 그래서 전자에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3 정도로 줄여야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왜 그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언론에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예요. 여기 밖에 기자분들 많이 와서 계세요. 나도요 국회보좌관도 해 보고 기자분들 많이 접촉해 봐서 잘 알아요. 중심 좀 잡아서 해요, 중심 좀.

자료를 보면 중랑구에 주간지 구독부수는 140부인데 예산액이 57만원으로 나왔어요. 자료 150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57만원 가지고 140부를 볼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네요. 1년 예산액 같은데, 그렇죠? 오타가 났다든지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공보관한테 알려드리세요. 다른 구 하고 비교를 하면 형편없이 안 되니까 그러죠.

○공보관 남상우; 주간지가 뉴스피플이나 뉴스플러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이 주간지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독부수가 종로, 중랑, 강서, 서초, 은평, 강동은 다른 구에 비해서 10배

씩 많다고요. 다른 데는 15만부, 20부씩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낸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료 맞아요? 이것이 정확한 자료예요? 내가 중랑구에 확인해서 이것이 틀렸을 때는 허위자료 낸 것으로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지역신문이 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보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아니, 140부를 57만원 잡은 것이 맞느냐고요. 이렇게 자료를 성의없이 의회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들 하고.

이렇게 행정감사하는 데도 긴장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의원이 바지 저고리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물으면 정확하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구청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부수가 97년에 비해 98년에는 각각 10%, 9%, 4%씩 증가를 했어요. 지금 모두 절감하는 IMF시대라고 그러죠? 언론도 IMF라고 하죠. 공보관계서도 IMF라고 하죠. 나도 IMF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기관에 후합니까? 왜 일간지는 10%, 주간지는 9%, 월간지는 4%씩 증가를 시켜 줬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사항은 각 자치구

에서 자치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태경 위원; 계도할 책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남상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콩 뇌라 팔 뇌라 구청장들한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권유를 해서 IMF에 같이 동참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좋아요. 자료 397페이지 봅시다.

그간의 홍보행정 실태에서 홍보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어떻게 얼마나 실렸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되어 각종 구습과 관행이 필요악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어떻게 얼마나 실렸느냐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것을 해서 살아 남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구습과 관행이 필요악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현 실정이었다고 했어요. 각종 구습과 관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낼 수가 없을 테니까.

정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내시는데 아주 대외비를 찍어서 해도 좋으니까 무진장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공보관 남상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세요.

또 최근 언론동향과 향후 전망에서 예전의 신문카르텔 구조가 붕괴되면서 언론사 간 무한경쟁 초래되어 양적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은 환경에 변화가 공보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PR측면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임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맞는 말 같아요. 공무원들이 바른 시정만 펼치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하면 기자들이 취재하지 말라고 해도 취재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가 잘 하면 쓸 수밖에 없고 취재할 수밖에 없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앞에 말씀드린 각종 구습과 관행의 내용을 절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앞서서 엉뚱한 계획이나 짜고 앉아 있고.

내년예산에서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시장한테 따져볼 거예요. 용의 없으세요?

답변 못 하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견해만, 용의만,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공보관 남상우; 그런 용의가 없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 용의가 없으면 구습과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태경 위원; 무슨 홍보예요, 어떤 홍보? 이것은 기자들 하고 관계문제라니까요. 언론동향과 향후 전망, 서울시정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론동향 분석을 했잖아요. 최근의 언론동향과 향후 전망, 서울시정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분석한 것이라니까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것이라고 분석을 했던 말이에요. 홍보를 거기에 쓸어다 얘기하시려고 해요?

언론동향과 향후 전망에서 예전에 신문카르텔 구조가 붕괴되었죠? 그래서 신문사 간 무한경쟁이 초래됐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래서 양적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지금 이것이 서울시가 분석한 것 아닙니까? 또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공보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PR측면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도 보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바른 자세로 바른 행정을 펼치고 바르게 행동하면 바른 언론이 바르게 써 줄 것이다, 바른 내용이 전달되어서 시민이 바르게 생활해서 바른 발전을 해서 2배 3배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의가 없다! 용의 없으면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가지고 구습과 관행을, 그것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필요악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필요악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었던 각종 구습과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보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의롭지 못한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겠다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용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전부 악으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태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악으로 구습에 쓰이는 것

이 몇 %나 돼요?

○공보관 남상우; 위원님께서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송태경 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총 5억, 6억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는 그런 필요악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써야 되겠다는 %를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그래야 예산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필요악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 필요악이 아닌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몇 %예요? 공보관이 그것도 제대로 분석 못해요? 그러면 예산담당이 공보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필요악이 아닌 부분만 얘기하라고. 필요악이 아닌 부분을 쥐야지 필요악까지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주느냐 말이야.

○위원장 김종구; 정속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시죠. 한 마디로 못합니다. TV토론회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민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민이 긍정하겠습니까? 몇 %인지 답변을 못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았죠? 필요악을 뺀 나머지만, 그것만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시한폭탄 터져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물으시니까 왜곡, 오보 등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이후 검찰 고발조치 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공보관은 이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 한다고 얘기했던 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왜곡, 편파, 오보가

98년만 해도 10월까지 77건이고, 97년만 해도 92건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공보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의 공보관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대단히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를 나온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보가 된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보된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고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고쳐지고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보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공보관이 제소를 한다거나.....

○송태경 위원; 잠깐만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보관 남상우; 아니, 제 말씀 좀 다.....

○송태경 위원; 보세요, 아까도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오보나 왜곡보도가 시민의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고정관념화 고착화 돼 가지고 지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이 자기의 인생에 실패를 보거나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자기 신체상의 손해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준이 바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중대한 위해에 처해 있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왜 저희들이 제소를 안 하겠습니까? 제소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심각한 그런 오보는 아니

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소를 하게 되면 기사를 쓴 기자 한 사람한테만 시와 대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는 물론이고 또 그 옆의 회사도 다 근목자혹이라고, 다 끼리끼리 한다고 언론이 시하고 이반돼 가지고 모든 행정을 아주 거꾸로 이렇게 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이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보관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시비를 붙으면 결국 나중에 어느 공보관도 배겨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중에 시장님이 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참고 그렇습니다.

○송태경 위원;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잘못 구린 데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터져 가지고 더욱더 사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죽는 것은 시민이라니까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우리 기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기사를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잘 써주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보가 98년도만 해도 77건이나 나와요?

○공보관 남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보는 우리 기자들 거의가 우리가 설명을 잘 못 했다는지, 아니면 기자가 기사를 잘 썼는데도 타이틀을 붙이는 편집부에서 그 기사하고 다르게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원칙대로 단 한 건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지 않으면, 관에서 공무원이 그렇

지 않으면 더 깔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공보관 남상우; 글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자분들과 충분히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홍보할 수 있죠.

○송태경 위원; 홍보는 국민들이 알아서.....

○공보관 남상우; 보도를 하도록 하는 거죠.

○송태경 위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기자들 접촉해서 뭘 홍보를 하느냐구요, 국민이 듣지도 않는 것 아까 한다고 처음에 유도단계에서 다 해 놓고는.

○공보관 남상우; 기자들은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태경 위원; 무슨 시민의 대표예요, 기자가?

○공보관 남상우; 언론을 하는 분들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송태경 위원; 그렇게 공보관이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능력과 의지가 없는 둘 중에 하나 해당된다면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자가 시민의 대표입니까? 사회 직업인으로서 공정성을 하는 것 뿐이지.

○공보관 남상우; 시민의 여론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송태경 위원; 누가 그렇게 시민의 여론을 대변해 준다고 그랬어요? 시민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97건, 77건씩 오보, 편파, 왜곡, 이런 것을 보내냅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것을 보면 6·25전쟁 작전수행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구; 송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보관 남상우;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렇게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열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송태경 간사님께서도 질문을 정리해서.....

○송태경 위원;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과에서 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쪽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계속 이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구;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열은 낮춥시다.

○송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97, 98년도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보도 내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월드컵 관련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보도내용 검색에 보면 그 날짜에 하나도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월드컵 관련해서 10월 1일 일간지 두세 개하고, 10월 13일 일간지 네댓 군데에서 월드컵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특혜의혹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시정 비판 보도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정에 대한 비판보도로 안 봤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거기 내용을 보세요. 거기 보면 월드컵 관련 보도기사 검색목록 신문, 방송 쪽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월드컵

관련기사가 몽땅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뭐냐구요? 그 기사는 오보나 왜곡보도나 편파보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신 건가요?

○공보관 남상우; 공보관이 총괄을 하지만 과에서 바로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관이.....

○위원장 김종구; 네, 담당관이 하세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도기사 검색목록을 보고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아직 페이지수를 검사를 못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을.....

○송태경 위원; 갑갑하네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도기사 검색목록 1998년 11월 8일 하는데 1998년 10월 1일, 284페이지를 보시고, 285페이지를 보세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네,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거기에 10월 1일에 모 일간지에서 서울시 월드컵주경기장 업체선정 의혹, 서울시의회 전면조사 착수, 상암동 월드컵구장 시공 감리업체 시의회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 나서, 이게 10월 1일자예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네,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송태경 위원; 좀 들어봐요, 토달지 말고.

13일에 모 일간지 월드컵상암구장 시의회에서 논란, 특위 일부 위원 시공사 재선정 요구, 주경기장건설단에서는 문제 없다 답변, 서울시의회 주경기장 의혹 추궁, 월드컵주경기장 감리업체 선정의혹, 상암구장 감리업체 선정 설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 8, 9건에 대해서 이런 월드컵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이 검색에는 빠졌느냐구요.

아까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

요. 주요시책을 의무적으로 달라붙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 뒤에 보면 이것을 부서장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거기에 제재까지 가하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구요.

이 월드컵 관련 기사는 시정비판 보도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했기 때문에 안 심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심는 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보도 내용만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아니죠? 상의해 봤죠? 진철훈 올림픽주경기장건설단장하고 해 봤죠? 본위원이 특혜의혹이라고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실공사 돼요.

지금 월드컵은 난리예요. 서울시가 지음 잘못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비상대책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왜곡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곡보도 시정조치, 오보에 대한 내용, 부분적 오보 수치 사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기사내용의 잘못이 없을 때는 제목이 악의적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오보 시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 전쟁을 방불케 해 놨다고.

여기 자기들 부서장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말이지 거창하게 해 놨는데 왜 이게 빠졌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진철훈 단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월드컵은 그게 이 신문기사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 대한 비판보도를 안 한 것 보니까 월드컵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다른 보도였었다. 맞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보도담당관 서철모; 월드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서울시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한 것은 서울시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저 양반, 보도담당관님! 월드컵 특혜의 감리는 서울시가 계약을 해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네, 서울시가 계약한 게 맞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묻는 거라구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규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도 않고 이렇게 위원한테 자료 제출했어요?

○보도담당관 서철모;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84쪽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그대로 출력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송태경 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가 왜곡보도인지 편파보도인지 오보인지.....

○보도담당관 서철모; 바로 입력이 됩니다.

○송태경 위원; 그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암구장에 대한 것은 몽땅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철훈 단장이나 서울시 쪽에서 아니,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뺀 거라는 말이에요. 맞죠?

○보도담당관 서철모; 그것을 제가 지금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해 가지고.....

-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니까.
- 보도담당관 서철모;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태경 위원; 그것도 확인 못하면서 여기 앉아 가지고 보도담당관이 이것을 지금 답변자료라고 내놨어요? 아니,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곡, 편파, 오보에 대한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그 과정에서 다 해 가지고 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보도담당관 서철모; 원칙을 말씀드리면 보도가 나오면 바로 바로 그 날 입력을 시킵니다.
- 송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되었을 것 아니에요.
- 보도담당관 서철모; 그래서 이상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위자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 보도담당관 서철모; 컴퓨터에서 그냥 뽑은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 동안에 성실한 답변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 송 간사님께서서는 질문요지만 간단히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구; 그래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 송태경 위원; 본위원은 상관 없습니다. 금방 끝나요.
- 위원장 김종구; 그래요? 그러면 질문요지만 부탁드립니다.
- 송태경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23페이지, 98년도 왜곡·편파 및 오보 시정현황 해서 죽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까 언론에 가서 이것 고쳐주시오, 저것 고쳐 주시오 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규명된 것도 상당수가 있어요.

첫째, 조순 시장 건에 대한 것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98년 1월 15일 월드컵 주경기장계획 수정 싸고 대립, 그랬는데 제목정정을 해 달라고 했어요. 시각차이로 사실과 다른내용 해명 해 냈는데 결국은 특혜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들이 제기된 것은 기자들이 정말 올바르게 취재를 한 것을 갖다 그 당시는 기자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항의조치한 거예요. 이것은 기자들한테 가서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 125페이지 독섬돔구장 백지화 시민세금 100억 날린 셈, 100억이 아니고 156억이 날라갔고 지금 현재도 하루에 1,400만원씩 시민세금이 날라가고 있어요. 이것 사실이란 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정정을 요구를 했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올바르게 쓴 것도 오보라고 해서 가서 항의해서 시민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을 가서 흐려 놔. 그러니까 무엇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 2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당산철교 철거 불가피, 보도내용 정정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3월 7일 조선일보에 조순 서울시장 요즘 왜 바쁘가, 시청 옥상에 서면 청와대가 보인다, 이것도 보도내용 정정요구 해서 배달판에 제목정정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7월 25일 조순 시장 대통령 출마 움직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해명자료 제출하고 타 언론

사에 확산을 방지했다, 이런 것이 나오구요. 8월 14일 월드컵 전용구장 외면 댄 서울제외, 보도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정요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몇 달 뒤에는 다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기자들이 노력해서 취재해서 해 놓은 것을 그냥 아첨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밤낮으로 언론사에 가서 이것 해서 시민을 다르게 판단하게 만들어 놓으니, 조순 씨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가서 대통령 후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올바르게 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본인이 부정했다고, 그러면 조순 명예총재를 갖다 고발조치를 해 버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보냐 아니냐 이런 기준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당산철교 부분인데 이해를 전혀 못 하겠어요. 내가 지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이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 520-5912, 당산철교는 96년도 12월 31일 전동차 2호선을 운행중지를 해서 97년 1월 1일 궤도나 전차선 철거를 시작을 해서 97년 4월 1일 상판제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96년도 3월 14일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당산철교 철거와 맞물려 설상가상 그래서 지하철공사 제목정정 해서 방지했다고 결과를 보고를 해 놓고. 그런데 이 당산철교가 96년 1월 8일 서울신문에 당산철교 218곳 균열 2배 확산, 연말 철거 앞두고 안전비상 지하철공사 제목 및 내용정정을 해 달라고 해서 또 방지를 했는데 결국 철거 들어갔습니다. 철거 해서 상판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서울시가 이렇게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서 틀렸습시다라고 해서 혹시나 성수대교 같은 사건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것 철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 잘 들으세요.

97년도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97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그 시정 조치 결과보고서를 내달라고 하니까 97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와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9페이지 보세요. 공보관 보셨어요? 그대로 있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96년도에는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감사원에서 시 종합감사를 할 때 받았습시다.

○송태경 위원; 96년 몇 월입니까? 감사원감사죠?

○공보관 남상우; 자체감사는 안 받으셨어요? 감사원감사를 받았는지 자체감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참 정말 갑갑하네. 공보관실이 신성불가침지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96년에는 뭐뭐를 받았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96년에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전체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우리 공보관실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98년에 감사원에서 받았어요?

○공보관 남상우; 96년하고 98년.

○송태경 위원; 그 감사원감사 자료를 원본대조필 해서, 감사원에서 통보된 자료 있죠? 그것 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나온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4쪽에 업무추진비를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해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불가,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사적용도 사용으로 간주. 이 책 믿으세요?

○공보관 남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공보관에서 아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일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그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용어자체가 군의 공작업무 같은 성격이 들어서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본위원도 군대 3년을 육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병장제대를 했는데 특수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이상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올해 2월에 감사 받으셨다고 했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보관 남상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이것이 그 자료예요. 감사원, 귀 시에 대하여 1998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감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처분요구 등을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사항 4건, 시정사항 9건 해서 총괄해서 내보냈어요. 위 처분요구는 징계사항에 관련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해서 징계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17번, 소관청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제목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불철저. 내용 공보관실 1997년 6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와 제54조, 1993년 5월 23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관공비 정보비 운영에 대한 지시 및 1997년도 서울특별시에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정당한 체주의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가.공보관실에서 위 기간 동안 시책추진관련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예산 4억 8,817만 5,000원을 집행하면서 174회에 걸쳐 지출한 특수활동비 1억 3,560만 6,000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의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업무에 철저해라 라고 감사결과가 나왔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이것 향후 어떻게 조치했어요?

○공보관 남상우; 감사원감사를 받은 후에 모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확한 체주의 영수증과 그리고 저희들이 카드를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징계나 신분상 처벌은 없었습니다.

○송태경 위원; 1억 3,000만원을 그렇게 쓰고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이 뭐냐면 쌈지돈이예요, 쌈지돈.

특수활동비 이 액수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며칠날 어떻게 사용한 것이지 내역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영수증이 첨부 안 되었으면 사유를 다 해서 왜 그랬는지,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사용목적도 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자체 내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나한테 주시고, 96년도에 감사했던 자료도 일괄해서 감사자료를 다시 넘겨 주세요. 알았죠?

○공보관 남상우; 네.

○송태경 위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럴 용의가 없다. 공보관이나 송태경, 이 배지 영원히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보관자리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년 퇴직도 있고. 언제 어느 자리에 가서 서더라도 떼뺏아야 됩니다. 떼뺏한 공직자 자세를 병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공보관 남상우; 물론 저도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송태경 위원; 그래서 지난 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어떻게 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텐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빠뜨리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보관 남상우; 네, 물론입니다.

○송태경 위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기타 홍보, 정책적으로 모두 제시해서 같이 동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향후 앞으로 반복이 된다, 내일 감사관실 또 할 텐데 지속된다 그럴 때는 그만두실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금 서울시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고 간접민주정치니까 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거 공표가 된 거니까. 해서,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된다면 진짜 자리를 물러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실 수 있겠어요?

○공보관 남상우; 물론입니다.

○송태경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수복 위원님.

○김수복 위원; 문화과장이 왔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공보관, 방금 우리 송태경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약간 연결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 가지 설은 서울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공보관실이라고 하는데 대략 현금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설이 있는데.

○공보관 남상우; 지금 모든 경리서류는 카드로 합니다.

○김수복 위원; 카드로 하는데 비상용.

○공보관 남상우; 공보관실에서 특정한 경우에, 예를 들면 기자단.....

○김수복 위원; 네, 압니다.

○공보관 남상우;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항상 비축해 놓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총알을?

○보도담당관 서철모; 보도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복 위원; 네.

○보도담당관 서철모; 보도과장입니다.

기자들 관련한 부서가 보도과이기 때문에, 저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 3억 1,3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출해서 쓰는 것인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30%를 줄여서 2억 1,930만원입니다. 2억 1,930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요. 현금은 10원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 돈이 있는데 금방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쓰고서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부서 중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지참하고 있는 부서가 공보관실이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됐구요.

우리 공보관께서 여기 재임하신 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됐죠?

○공보관 남상우; 8월 12일자로 와서 한 석 달 열흘이니까 100일 정도 됐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언론사에 직접 가신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글썬, 셀 수는 없는데요. 많이 다닙니다.

○김수복 위원; 셀 수가 없죠? 거기는 보도과장도 같이 가나요?

○공보관 남상우; 같이 갈 때도 있고.....

○김수복 위원; 사정을 하러 주로 가게 됐고 또 입을 막으러도 가고 그렇죠?

○공보관 남상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복 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 공보관님하고 우리 보도과장은 주량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좀 드시죠?

○공보관 남상우; 저는 조금 하고요, 과장님은 저보다 조금 못 합니다.

○김수복 위원; 거기는 술을 못 먹으면 그 자리를 지탱 못하기 때문에 흔히 회사로 말하면 술상무 역할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술 잡숫고 굉장히 부대끼 일도 많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복 위원;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내가 연결은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술을 많이 안 잡수시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민한테 봉사하기도 맑은 정신이라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보관 남상우; 그렇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에 서울시 소식이라고 해서 정확히 각 구마다 가더라도 전부 광고가 나가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런 규정은 없구요, 광고사업자들이 공익광고를 40%, 상업광고 60%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공익광고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일체 부담을 안 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나요?

○공보관 남상우; 지금 설치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렇죠, 압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 질의를 하게 되고, 그 질의서에 준해서 구에서는 내주고 그러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익광고라고 할까 이런 것은 혜택을 받는, 어떻게 악어와 악어새의 사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글썄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광고사업자들한테 요만치의 권한행사를 할 게 없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매달리면서 홍보를 잘 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시면 오늘 이후에 전광판의 현황에 대해서 각 구청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냐 하면, 현재 전광판에서 위법사항하고 규정을 어겼다든지, 또 하나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실제로 상부기관이 서울시에 꼭 질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불법인 지역에도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 중에 230페이지, 본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등록된 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이 그 등록업무를 위반했을 때의 지도,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결과서 사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 34조에 의거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반으로 인해서 2,3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했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남상우; 이것은 문화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문화과장이 와 있어서.....

○김수복 위원; 네, 그러죠. 문화과장.

○위원장 김종구; 잠깐만요,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에 조사하시는 김수복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박경만 문화과장이 증인 출석을 해야 맞으나 저희가 회의 중에 참고로 묻는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참고인석에 와 앉아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오늘 우리 문화과장을 갑자기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오도록 한 것은 우리 공보관계서 오전 본위원의 질문에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것부터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문화과장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과장, 등록된 정기간행물 위반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문화과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부과한 데 대해서 자세하게 뽑아서.....

○김수복 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는 엉터리로 해 준 겁니까? 여기 원본대조필 해서 사론으로
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 230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
화과 사무관 이충세 씨 여기 오셨나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수복 위원; 여기 딱 집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신다 이거죠?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과태료가 지금 납부되지 않
은 체납액 내역만.....

○김수복 위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5명에
대해서 2,350만원, 전부 합해서.

○김수복 위원; 전액이 다 체납액이에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네.

○김수복 위원; 이것을 이제껏 체납이 되도록 방치한 사유가
뭐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체
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려를
하더라도 주소가 이전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체납으로 관리해 온 경우도 더러 있습
니다.

○김수복 위원; 문화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
니까? 여기도 역시 정기간행물이고 언론하고 연결이 되는
준언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
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를 인계 받은 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과약을 해 가지고 다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아니, 구두로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아니, 문서로 저희들이.....

○김수복 위원; 문서로 해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복 위원; 이것 형평성에 맞는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네.

○김수복 위원; 우리 시민이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체납되면 되는 대로 과태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재산을 압류,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불안하게 합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0건 전부 체납시켜 놓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문화과에서 자료를 쫓네요. 이 문제는 감사관 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여기 첨부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구별 불법음반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

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적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총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88개가 있는데 266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약 95% 정도가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길래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년 반 동안에 성동구에서는 237개 업소를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장소 그 자리에 이름만 바뀌어서 영업정지나 취소되거나 하면 그 친척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하던데,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96년도에서 98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26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취소한 건수는 합해 보니까 7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96년도 한 해만 해도 70건으로 나왔어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네, 등록취소 70건입니다.

○김수복 위원; 96년도 한 해만 해도 70건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97년도에는 등록취소 7건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김수복 위원; 그렇죠. 성동이 5건이고. 237건 이것은 계상착오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없는 그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네, 없습니다.

○김수복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성동이라든가 광진구는 그 많은 건수 중에서 한 건도 고발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위반유형에 따라서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위반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에 해당하는 데는 고발을 하는 구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유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적발된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고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가니까 그냥 허가취소 이렇게 하면 명의만 바꿔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유도해 준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양천구는 전체가 327개 업소가 있는데 650번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엄하게는 관리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구청별로 의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의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연간 단속된 건수가 누계로 볼 때는 그렇게 많습디다만, 그 위반된 내용들이 경고조치라든가 이러한 가벼운 내용들이 주로 많이 적발이 되다 보니까 건수면에서는 상당히 높는데 실질적인 중한 위반사항은 적은 것으로 각 구청별로 분석을 해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구청 관내에 있는 업소가 악의적인 업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예를 들면 용산의 경우에 보면 전자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많고, 변두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디오감상실이기 때문에 가벼운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방금 취약지역이나 용산은 전자상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동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표적인 자치구고.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를 보면 전체 800개 업소 중에서 600건을 위반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지 않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강남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등록취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수복 위원; 취소를 시켜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에서 그 업종으로, 규정에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생업보의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었을 때에 같은 명의로 6개월 내에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의로 바뀌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이름을 바꿔 온다든지 해서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반려시킬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법은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되면 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그런데 그것을 접수를 시켜서 허가를 해 줄 때 요건이 그런 것이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비디오관계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우리 문화과장, 여기 시에서는 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저희 과에서는 담당직원 한 사람하고 담당팀장 한 사람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연결되어서.....

○김수복 위원; 자치구는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자치구에도 법에는 인력구조상 이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수복 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조조정이예요, 조직개편. 1만 1,305개 업소가 되는데 시에서 2명은 말도 안 될뿐더러 이 엄청난 민원이 자꾸, 여기 자료에도 보면 1년이면 보통 2,500건 정도 불법단속을 하고 또 취소를 시키고 다시 내주고 이런 업무를 구에서 한 명 정도고 시에서 2명이 총괄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 눈감고 아용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조직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내일이라도 즉시 시장한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런 데는 보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자치구별로 담당직원은 1인 내지 2인이라 하더라도 상설단속반을 구성을 할 때는 각 과에 차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 아니,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각 구는 자치구에서 할 문제고, 시에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1만 3,000개 업소가 넘는데 1년이면 2,500건이 허가가 취소되고 행정처분받고 영업정지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또 시작되고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렇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업소의 등록과 행정처분, 단속의 권한이 자치구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법령이라든지, 정부의 전체적인 단속지침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각 자치구청한테 그 때 그 때 차질 없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소의 등록이라든지 단속, 행정처분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업소가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구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업무의 비중을 싣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자치구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지도함과 동시에 본위원이 12시 넘어서 몇 군데를 대표적으로 나가 봤어요. 나는 보통 자료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현장을 가 봅니다. 비디오방에 침대부터 틀러먹었고요.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반포도가 보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는 말로써 하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의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가출 소년·소녀들의 숙소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리고 희한한 것을 전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더 받고 틀어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가출소년·소녀가 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등등을 이번 감사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기안을 해서 각 자치구로 보내고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전부 우리 시민이에요. 자치구라고 해서 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자치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 송태경 위원인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인력풀 있죠? 시 본청도 그렇고 자치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에서 단속이나 이 업무를 위해서 편성된 것 있어요?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 본청은 없습니다.

○송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술하다니까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청소년의 비행이나 가출청소년 이런 문제를 청소년의 비행이나 가출청소년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과장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인력풀도 개편으로 해 봤어요. 그래 놓고 의원들이 보좌관문제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 행정관리국장이라고 앉아서 말야. 한 번씩 흔들 나야지 정신들 차릴 거예요.

○위원장 김종구; 우리 김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

금 시내 각처에 있는 전광판 운영에 대한 단속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광고주들이 형제 간 또는 동생들이 줄줄이 해서 계속 지적당하고 지적당하고, 돌리고 취소당하고 다시 살리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 연속된다 이 뜻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 비행장소로서 비디오방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단속권이 시에 없으면 각 구청과 관할서의 협조하에 집중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써, 또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인데 그 뜻을 바로 알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경만 문화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양호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 못 들은 부분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매일경제 8월 29일자 사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공보관 남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두레박이라고 하는 박스기사로 경평축구 다시 열자고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양호 위원; 여기에도 서울시가 평양측에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일경제만 나오고 다른 데에는 일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정식으로 발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나 이런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조양호 위원; 자료에 보면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나 고건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신문지상에 보면 ‘고건 서울시장은’이런 식으로 기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남상우; 아마 이것은 추측기사로, 그래서 두레박이라고 하는 박스기사로 썼지 신문의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기사로 되었으면 사회면이나 수도권면에 기사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기자가 박스 기사로 쓴 것입니다.

○조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12페이지에 노숙자대책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공보관 남상우;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양호 위원; 제때 노숙자대책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자고 했던 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자나 노숙자가 엄청나게 생겨서 중앙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일반에 관한 여론조사 중 일반시민들이 서울시에 가장 바라는 대책이 실업 대책이 실업대책입니다. 그것이 40.5%인데 제가 일간지나 주요 언론매체를 보면 서울시에서 과연 실업자나 노숙자 대책이 있는지, 또 노숙자들의 경우에는 과연 자기네들이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또 실업자는 어디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

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실업자나 노숙자, 또 서민에 관한 대책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실업대책이라든가 노숙자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고 계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보도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는 추워 오고 노숙자들이 서울에 2,6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현재 400명을 뺀 나머지 2,100명 정도가 희망의 집에 지금 입소가 돼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노숙자 중에 일부는 원래 부랑민처럼 떠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노숙자는 홈리스하고 달라서 대개 IMF 한파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노숙자에 대해서는 정말 동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상담도 전문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원으로 하여금 받을 구성해서 추운 영하의 날씨 때에도 새벽 4시까지 돌면서 상담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은 지금 한 2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도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50여만 되는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에서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조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계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 하나 업무에 반영, 시정조치한 후 향후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맡는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종구	송태경	이정은	김광수
김길원	김수복	김영준	민경엽
신경식	여정구	이건상	조양호

최충민 이철호 한춘자

○전문위원

이청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남상우

홍보담당관 이현구

보도담당관 서철모

○기타참석자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박경만